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영주 교수 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유방암생존자의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과
의복추구혜택에 관한 연구

2014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의류학과

이 은 옥

유방암 생존자의
다차원적 신체 이미지, 자아존중감과
의복 추구혜택에 관한 연구

이영주 교수 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의류학과

이 은 옥

인 준 서

이은옥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논문개요

최근 유방암 환자의 발생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수술과 치료로 인해 유방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함으로써 신체이미지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신체이미지의 변화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 의복을 선택하고 착용하는 기준과 기대하는 혜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특정 소비자 집단으로서 유방암생존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유방암생존자의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과 의복추구혜택을 일반 여성과 비교하여 파악하고, 유방암생존자 집단 내 수술방법에 따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의복추구혜택 및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를 분석하며,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과 의복추구혜택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과 탐색조사, 예비조사, 그리고 본조사의 세 단계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다. 본조사는 30-50대의 성인여성 540명으로 유방암생존자 207명, 일반여성 33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설문문항은 다차원적 신체이미지(MBSRQ), 자아존중감, 의복추구혜택과 인구통계적 변수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다차원적 신체이미지는 감정적 차원인 ‘평가(evaluation)’ 척도의 외모평가(AE), 체력평가(FE), 건강평가(HE), 신체부위별 만족도(BS) 및 몸무게평가(WT)와 인지·행동적 차원인 ‘관심(orientation)’ 척도의 외모관심(AO), 체력관심(FO), 건강관심(HO), 질병관심(IO)과 체중관심(OP)을 포함한 10개의 차원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는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BIABC)와 유방암 수술과 치료에 관한 문항들을 포함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t-검증, 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추구혜택과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의 차원을 분석한 결과 의복추구혜택은 자기표현·사회성, 기능건강성, 보상심리, 여성성, 유행성, 체형보완 추구의 6개의 차원으로 나타났으며, 유방암생존자의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BIABC)는 신체불완전성, 신체과민성, 신체제약성, 질병염려성 등의 4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둘째, 유방암 생존자와 일반 여성의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인 외모평가(AE), 건강평가(HE)와 총 평가(evaluation)는 유방암생존자가 일반여성보다 낮았으며, 인지·행동적 차원인 체력관심(FO), 건강관심(HO), 질병관심(IO)과 총 관심(orientation)은 유방암생존자가 일반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방암생존자가 일반여성보다 자아존중감 점수가 낮았으며, 의복추구혜택은 유방암생존자가 일반여성보다 기능건강성을 더욱 중요시하며, 전체 의복추구혜택도 높게 나타났다.

셋째, 유방암생존자의 수술방법에 따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전절제 수술을 한 집단이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이 약간 낮게 나타났다. 수술방법에 따른 의복추구혜택을 분석한 결과 자기표현·사회성, 보상심리, 여성성, 그리고 전체 의복추구혜택에서 전절제·복원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분절제 집단, 전절제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수술방법에 따른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BIABC)는 부분절제 집단이 전절제 수술 집단보다 전체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이었으며, 특히 신체불완전성은 전절제 집단이 가장 낮으며, 전절제·복원, 부분절제 집단 순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 수술방법에 따라 수술흉터나 신체적 매력에 대한 평가, 여성성 상실에 대하여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의복추구혜택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다차원적 신체이미지는 자아존중감에, 자아존중감은 의복추구혜택에, 또한 다차원적 신체이미지는 의복추구혜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의복추구혜택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외모관심(AO)이었으며, 건강

관심(HO)은 기능건강성에, 질병관심(IO)은 기능건강성과 보상심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방암생존자의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이 일반여성보다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학계의 노력과 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의복추구혜택에서 유방암생존자는 일반여성보다 기능건강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전체 의복추구혜택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유방암생존자라는 특정 소비자 집단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개발과 차별적 마케팅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유방암생존자 집단 내 전절제 수술을 받은 여성들의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이 전절제·복원, 부분절제수술 집단보다 낮으며,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BIABC)에서도 자신의 신체를 불완전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 신체이미지 개선을 위한 학계와 관련업계의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과 의복추구혜택은 정적 상관이 있으며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의복의 제품개발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충족시키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패션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1
2. 연구의 목적	6
II. 이론적 배경	7
1. 신체이미지	7
1) 신체이미지의 개념	7
2) 신체이미지와 의복 관련 선행연구	10
2. 자아존중감	13
1) 자아존중감의 개념	13
2) 자아존중감과 의복 관련 선행연구	14
3)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과 의복 관련 선행연구	15
3. 의복추구혜택	18
1) 추구혜택의 개념	18
2) 의복추구혜택 관련 선행연구	19
4. 유방암	26
1) 유방암의 일반적 특징	26
2) 유방암생존자 관련 선행연구	27
3) 유방암생존자와 의복 관련 선행연구	35

III. 연구방법 및 절차	38
1. 연구문제	38
2. 자료수집	40
1) 탐색조사	40
2) 예비조사	41
3) 본조사	42
3. 측정도구	45
1)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45
2) 자아존중감	48
3) 의복추구혜택	48
4)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	49
4. 연구대상	51
5. 자료분석	55
IV. 연구결과 및 논의	56
1. 의복추구혜택과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의 차원	56
1) 의복추구혜택의 요인분석	57
2)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	60
2.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과 의복추구혜택	63
1)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63
2)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자아존중감	66
3)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의복추구혜택	67
4)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의복추구혜택	70

3. 유방암생존자의 수술방법에 따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의복추구혜택과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	72
1) 수술방법에 따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	72
2) 수술방법에 따른 의복추구혜택	74
3) 수술방법에 따른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	76
4.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과 의복추구혜택의 관계	78
1)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80
2) 자아존중감과 의복추구혜택의 관계	81
3)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와 의복추구혜택의 관계	82
4)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의 하위변인과 의복추구혜택 하위변인의 관계	83

V. 결론 및 제언 88

1. 요약 및 결론	88
1) 의복추구혜택과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의 차원	88
2)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과 의복추구혜택	89
3) 유방암생존자 수술방법에 따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의복추구혜택과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	90
4)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과 의복추구혜택의 관계	90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93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탐색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항	42
<표 2>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하위척도	47
<표 3> 설문지 구성	50
<표 4>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52
<표 5> 유방암생존자의 임상학적 특성	53
<표 6> 의복추구혜택의 요인분석	58
<표 7>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의 요인분석	61
<표 8>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1	64
<표 9>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2	65
<표 10>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자아존중감	66
<표 11>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의복추구혜택	67
<표 12>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연령에 따른 의복추구혜택	70
<표 13> 수술방법에 따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73
<표 14> 수술방법에 따른 의복추구혜택	74
<표 15> 수술방법에 따른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	76
<표 16>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의복추구혜택의 상관관계 ..	79
<표 17>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의 영향 관계	80
<표 18> 자아존중감과 의복추구혜택의 영향 관계	81
<표 19>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와 의복추구혜택의 영향 관계	82
<표 20> 의복추구혜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요인	84

그림 목 차

<그림 1>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의복추구혜택의 관계	83
<그림 2>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하위변인과 의복추구혜택 하위변인의 영향 관계	8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유방암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여성암 중 가장 흔한 암이며, 국내의 경우도 갑성선암에 이어 두 번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성암이다. 유방암백서 2013에 따르면 한 해 새로 발생하는 유방암 환자는 1996년 3,801명이었는데 2010년에는 16,398명으로 증가하여 14년 사이에 약 4배가 늘어나 매해 만 오천여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병하고 있다(한국유방암학회, 2013). 최근 진단 검사법의 발달과 유방암 검사에 대한 보편적 인식 개선으로 조기 발견과 치료가 이루어져 유방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91.0%에 이른다. 이는 유방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후 일상으로 돌아와 생활하고 있는 유방암생존자(breast cancer survivors)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13).

여성에게 있어서 유방은 단순한 신체의 일부를 넘어 여성의 존재성, 다산, 모성을 의미해 왔으며, 최근에는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의 상징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Yalom, 1997). 그런데 유방암생존자들은 다른 암 수술과는 달리 여성의 상징인 유방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절제하게 됨으로써 물리적 손상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경험하게 되어 신체이미지와 자아개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임인숙, 2006; Dahl, Reinertsen, Nesvold, Fosså, & Dahl, 2010). 특히 수술과정에서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전절제 수술)을 받은 여성은 가슴 한쪽을 완전히 절제하게 되어 무게중심 불균형으로 인한 척추 측만증, 어깨통증 등 신체적 고통과 여성성 상실에 따른 부정적 신체이미지로 인해 불안, 우울 등 심리적 후유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l-Ghazal, Fallowfield, & Blamey, 2000; Kaelin, 2008).

최근 유방암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발에 대한 염려보다 여성성의 상

실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더 크다고 할 만큼(정승필, 2014) 이들의 신체이미지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 맥밀란 암지원센터는 암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된 안내책자들을 발간하고 있으며 암과 신체이미지(cancer and body image), 감정과 자아존중감 회복지침서(I am still me), 암 생존자의 일상(The rich picture on people living with breast cancer), 화장 및 뷰티케어법 및 간병하는 보호자를 위한 지침 등을 워크북, DVD의 형태로 제공한다. 또한 의학 세미나, 환우 모임, 페스티벌, 마라톤, 패션쇼 등 의학적, 정서적 지원으로 암 생존자의 전인격적 회복과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Macmillan cancer support, 2013). 근래에 암 치료는 신체적 치료뿐 아니라 마음의 치유를 포함하는 통합적 치료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급증하는 유방암 발생율과 수술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고려했을 때 유방암생존자의 신체이미지와 심리적 변인들에 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신체이미지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정신적인 상(mental image)으로서 신체에 대한 느낌과 태도를 말하며, 자아개념의 핵심 요소일 뿐 아니라 자아개념을 평가하는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이는 사회적 요인과 환경에 의해 변화되며, 외모, 체력, 건강, 질병에 대한 지각, 평가 및 태도를 포함하는 다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Cash & Pruzinsky, 2002).

유방암생존자의 신체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수술로 인해 손상된 신체에 대한 지각이나 팔 동작과 신체활동의 제약을 측정하는 물리적 신체이미지를 측정하거나(Baxter, Goodwin, Mcleod, Dion, Devins, & Bombardier, 2006; Hopwood, Fletcher, Lee, & Al-Ghazal, 2001), 유방암 수술 후 성기능에 관련된 신체이미지를 측정하는 연구(Dalton, Rasmussen, Classen, Grumann, Paesh, Zarccone, et al., 2009; Engel, Kerr, Schlesinger-Raab, Sauer, & Holzel, 2004)등 단일차원으로 신체이미지를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다. 한편 신체이미지와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 유방암생존자의 신체이미지, 매력, 여성성은 우울, 삶의 질과 상관관계가 있으며(Begovic-Juhant & Chmielewski, 2012; Constant, van Wersch, Menke-Pluymers, Tjong, Eggermont, & van Geel, 2004; Moreira & Canavarro, 2010), 신체이미지가 높은 환자들은 암에 대한 태도와 치료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Price, 2009). 그러나 신체이미지를 측정할 척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며, 외모와 신체에 대한 단일차원의 연구가 대부분이라 유방암 수술 후 얼마나 또는 어떤 신체이미지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반여성과 신체이미지를 비교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으나, 평균연령이 높고 수술집단의 대상자가 수술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집단 간 신체이미지의 차이는 미비하였다(Sabiston, Rusticus, Brunet, McDonough, Hadd, Hubley, & Crocker, 2010). 따라서 타당성이 검증된 척도를 사용하여 다차원적 신체이미지를 측정하고, 신체이미지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신체이미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Rosenberg, Schooler, & Schoenbach, 1989)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서 자신의 외모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만족할수록 자신을 존중한다고 하였다(유태순, 2013, Lennon & Rudd, 2001). 의복은 신체의 연장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자신이 지각한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에 따라 의복을 선택하고 구매하는 의복행동이나, 의복을 통해 얻고자 하는 유익이 달라진다(Ford & Drake, 1982; Keeton, Cash, & Brown, 1990; Sontag & Schlater, 1982). 선행연구들을 통해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은 의복추구혜택에 영향을 주는 변인 중의 하나로 규명되었으며,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의복을 통해 개성, 자기표현 추구혜택이 높으며(김광경, 이금실, 정미실, 2001; 조선명, 고애란, 2001),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의복동조성, 사회승인에 대한 추구

혜택이 낮고 심미성과 개성성 추구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김순구, 윤학자, 1986; Humphrey, Klassen, & Creekmore, 1971). 그러나 유방암생존자에 관한 의류학계의 연구는 인조유방이나 브래지어 착용에 관련된 연구(이경미, 최혜선, 2001; Feather, Rucker, & Kaiser, 1989)등 소수의 연구가 있을 뿐, 의복행동이나 의복추구혜택 등에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유방암생존자를 특정 소비자 집단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과 그에 따른 의복추구혜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유방암 발생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유방암생존자의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과 의복추구혜택을 일반여성들과 비교하여 파악하고, 유방암생존자 집단 내 수술방법에 따른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의복추구혜택 및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를 분석하며,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과 의복추구혜택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유방암생존자에 관련된 연구는 유방암 수술로 인한 결과변수로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을 규명하는 연구나 유방암생존자의 심리적 변인과 삶의 질에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 소비자 집단으로서의 유방암생존자의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을 선행변수로 하여 의복추구혜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봄으로써 소비자 행동 측면으로 접근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둘째, 본 연구는 유방암생존자의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과 의복추구혜택을 일반여성들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한다는 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유방암생존자의 신체이미지를 수술과 관련된 신체이미지와 다차원으로 구성된 신체이미지를 측정하고, 수술방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 유방암생존자의 다각적 측면의 이해를 돕는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유방암생존자의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을 밝히고 의복추구혜택

과의 관계를 분석해 유방암생존자라는 특정 소비자 집단의 특성을 규명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관련업계의 상품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유방암생존자의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과 의복추구혜택을 일반여성과 비교하여 특정 소비자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여성의 의복추구혜택과 유방암생존자의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의 차원을 밝힌다.

둘째,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의복추구혜택을 알아본다.

셋째, 유방암생존자 집단 내 수술방법에 따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의복추구혜택, 및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를 조사한다.

넷째, 성인여성의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과 의복추구혜택의 관계를 밝힌다.

II. 이론적 배경

1. 신체이미지

1) 신체이미지의 개념

신체이미지(body image)란 신체적 자아, 즉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이미지로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느낌과 태도를 말하며, 자아개념의 근본적인 핵심요소일 뿐 아니라 자아 개념의 평가적 구성요소중 하나이다(Cash & Pruzinsky, 2002).

심리적 측면에서 볼 때 자아는 물질적 자아, 사회적 자아, 정신적 자아, 그리고 순수 자아 4가지로 구성된다. 신체는 물질적 자아로 '나'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이다. 이러한 신체적 자아에 대한 인지와 지각된 상을 신체이미지라고 한다(James, 2005). 특히 여성에게 있어 신체이미지는 여성성과 매력을 포함하는 자아를 구성하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Mock, 1993; Solomon & Rabolt, 2004). 신체이미지는 새로운 환경 및 자극을 통해 그리고 시대의 이상적인 미의 기준과 유행 등 사회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자신의 신체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가치관도 반영되어 끊임없이 변화한다(Cash & Smolak, 2011; Thompson, 1990).

신체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부터 신체에 대한 지각과 경험을 포함하는 사회적, 심리적 틀로서의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신체이미지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신체의 의미를 넘어서, 심리적 경험으로서의 신체, 그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느낌으로(Grogan, 1999) 신체만족, 신체개념, 외모만족, 신체왜곡, 신체관심, 신체존중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등 다양

한 구성 개념을 포함한다.

신체이미지는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네 가지 범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신체의 경계(body boundary)를 살펴보는 것으로 신체이미지에 대한 정신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Fisher & Cleveland, 1968). 자신의 신체를 환경으로부터 확실하게 분리하여 지각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신체적 자아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였다(Fisher, 1986).

둘째, 신체에 대한 만족도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방법이다(Secord & Jourard, 1953). 신체 각 부위(머리, 얼굴, 목, 팔, 다리, 몸통)의 생김새 및 신체적 특징 34문항과 신체 기능 12문항으로 신체만족도(body cathexis)를 측정하는데, 신체 만족도가 자아 평가에 영향을 주며, 신체 만족은 전반적인 자아에 대한 느낌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LaBat & DeLong, 1990). Tucher(1981)는 이 척도로 건강, 신체 기능 및 신체 부위의 만족도 등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신체적 자아의 다면적 측면을 측정하여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셋째, 신장과 체중에 의해 형성된 체형(figure)과 실루엣(silhouette)을 그림으로 제시하여 인지적 신체이미지를 연구하는 방법인 실루엣 테스트(silhouette task)가 있다(Fallon & Rozin, 1985). 아주 마른 체형(1점)부터 아주 비만인 체형(9점)까지 그려진 검사지에 자신의 실제 체형과 이상적인 체형을 선택하게 하고, 그 결과로 지각적 신체이미지와 이상적 신체이미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의 차이를 통해 신체 불만족과 신체이미지의 혼란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

넷째, Brown, Cash와 Mikulka(1990)의 다차원적 신체 자기 관계 질문지(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 Questionnaire: MBSRQ)를 통해 신체 이미지를 연구하는 방법이다. 이 척도는 신체적 외모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인지적 경험에 바탕을 둔 심리적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최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김광경 외, 2001; 김선희, 2003; 박지현, 최태산, 2008; 이미숙, 2009; 조선명, 고애란, 2001).

다차원적 신체이미지는 1984년 Winstead와 Cash로부터 개념과 척도 개발이 시작되었다. 연구진은 외모(appearance), 체력(fitness), 건강(health) 세 영역의 평가(evaluation), 관심·중요(attention·importance), 행동(behavior)에 대한 태도적 차원을 측정하여 9개의 하위척도(3개 영역 x 3개 차원)로 구성된 신체 자기관계 질문 척도(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BSRQ)를 개발하였다. 그 후 1985년 Cash, Winstead 와 Janda는 미국 전역에 전국조사를 통해 30,000명의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의 신체이미지를 측정하여 분석하였으며, 2,000부의 샘플링을 통해, 관심·중요 차원을 행동과 병합하여 관심(orientation)이라는 차원으로 명명하여 6개의 하위척도(3개 영역: 외모, 체력, 건강 x 2개 차원: 관심, 행동)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BSRQ의 신뢰도, 수렴 타당도, 판별 타당도, 구성개념 타당성을 확보하였다(Brown, Cash, & Lewis, 1989; Cash, 1994; Keeton et al., 1990). 그리고 1990년 BSRQ 54문항과 신체만족 척도 9문항, 그리고 체중관련 척도 6문항을 추가하여 69문항, 10개의 하위척도인 다차원적 자기 이해관계 척도(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MBSRQ)를 완성하였다(Brown et al., 1990).

MBSRQ는 감정적 차원(affective aspect)과 인지·행동적 차원(cognitive-behavioral aspect)의 두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정적 차원은 자신의 외모, 체력, 건강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느끼는가에 대한 신체이미지에 대한 만족, 인식, 열망, 불안 등의 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외모평가(appearance evaluation), 체력평가(fitness evaluation), 건강평가(health evaluation), 신체 부위별 만족도(body area satisfaction)와 몸무게평가(weight)로 이루어져 있다. 인지·행동적 차원은 자신의 외모, 체력, 건강, 그리고 질병에 대한 지각과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능동인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평가로 외모관심(appearance orientation), 체력관심(fitness orientation), 건강관심(health orientation), 질병관심(illness orientation), 그리고 체중관심

(overweight preoccupation)으로 이루어져 있다(Cash, 2000).

Cash와 Pruzinsky(2002)는 지각하는 신체이미지와 신체이미지 태도가 개인의 심리적 변수들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으며, 신체이미지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신체이미지는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주관적이고 태도적인 부분인 감정적 차원과 인지·행동적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체이미지의 변화 역시 다차원적이다.

둘째, 신체이미지는 사회적으로 결정되며, 사회적 매력성에 대한 기준에 따라 사회의 영향력이 작용된다. 이 영향력은 남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데 여성이 사회적 변화에 따라 신체이미지의 변화가 더 민감하다고 하였다.

셋째, 신체이미지는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의복, 화장, 액세서리 등과 같은 외모관리에 따라 신체이미지에 대한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넷째, 신체이미지는 행동에 영향을 준다. 신체이미지에 따라 불만스러운 신체 부분이나 체형을 가리고 보충하려는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준다. 실제 생활에서 의복은 신체의 일부로 여겨지며, 지각된 신체에 대한 외형을 변하시키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체형보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MBSRQ는 외모에 대한 평가 및 관심 뿐 아니라 체력, 건강, 질병 등 다차원적으로 구성된 신체이미지를 연구하는데 적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MBSRQ를 사용하여 다차원적 신체이미지를 측정하고자 한다.

2) 신체이미지와 의복 관련 선행연구

신체이미지는 외모에 대한 태도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의복, 화장, 액세서리 등을 이

용하여 불만족스러운 신체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행동을 한다(Cash, Winstead, & Janda, 1986; Fisher, 1986; Thompson, 1990).

신체이미지와 의복관련 선행연구를 분류하여 살펴보면 먼저 신체만족도와 의복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McLean(1978)은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밝혔으며, 신체만족도에 따라 의복행동, 의복추구혜택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고(황진숙, 1998)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의 심미성을 중시하며 외모향상태도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다(전경란, 이명희, 2003).

또 다른 연구들로는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척도가운데 외모관심과 신체만족도의 하위척도를 사용하여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있다. 고애란, 이수경(2004)은 외모관심, 신체만족은 자아존중감과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외모평가는 의복태도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고 의복태도 형성 모델을 제시하였다. 해주연, 고애란, 정미실(2005)은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외모관심은 유행, 의복과시성, 의복의 사회승인성, 심리적 의복의존성에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체중관심은 유행관심과, 신체만족은 사회승인성에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외모관심, 신체매력은 유행성, 심미성에 영향을 미치며, 의복을 통한 과시행동을 많이 하며 신체만족은 정숙성, 유행동조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밝혔다(이미숙, 송경자, 2009)

한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의 하위척도 가운데 외모, 체력, 신체만족 척도와 의복행동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김광경 등(2001)은 MBSRQ의 건강에 관련된 문항을 제외한 33문항을 사용하여 외모관심, 신체매력, 몸매관리, 운동능력 등 4개의 차원으로 도출하여 분석하였는데 외모, 체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은 의복에서 개성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신체를 돋보이려고 노력하며, 의복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 하고 성적 매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의복을 선호하였다. 또한 개성추구와 신체보완, 사회적 인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외모관심으로 나타났으며, 성적 매력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체

이미지의 변수는 신체매력이었다.

또한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와 의복추구혜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조선명과 고애란(2001)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연령 집단별로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 추구혜택에 미치는 관련성을 분석하였는데,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은 모든 연령집단에서 의복추구혜택(개성, 자기표현, 기분향상, 신체모습향상)에 정적 영향을 있었으며, 의복을 통해 이상적 신체모습과 개성, 자기표현의 혜택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태귀(2002)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모의식 정도와 유행성, 신체적 결점보완, 성적 매력, 개성추구 성향 간, 체중 조절 정도와 신체적 결점보완, 성적 매력 추구 성향 간, 신체적 매력을 느끼는 정도와 성적 매력, 개성, 실용성 추구 성향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밝혔다. 정미실, 이금실(2007)은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인 여대생 집단은 의복의 심미성, 연예인 모방성, 명품 선호 및 신체 외모향상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및 의복추구혜택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하위척도 중 외모관심이 높으면 의복을 통해 심미성, 개성성, 유행성, 사회적 인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중관심, 신체만족도 의복추구혜택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모관심, 체중관심, 신체만족도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신체이미지는 각 하위요인별로 의복을 통해 추구하는 혜택에 다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의류학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MBSRQ의 외모, 체력, 체중, 신체만족에 관련된 3-4개의 하위척도를 추출하여 연구하였는데 본 연구는 유방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외모, 체력, 건강, 질병, 체중, 신체만족 등의 태도와 평가를 포함하는 10개 하위척도를 모두 사용하여 유방암 생존자의 다차원적 신체이미지를 살펴보고, 각 하위차원들이 의복추구혜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2. 자아존중감

1) 자아존중감의 개념

자아존중감이란 하나의 특별한 객체인 자아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정의되며, 자아개념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아개념보다 한정적이며 일관성 있는 개념을 뜻한다(강혜원, 이금실, 고애란, 정미실, 남미우, 김양진, 2012). 즉, 개인의 자기가치와 자기수용 정도를 포함한 자신에 대한 느낌으로서 자아개념과 연합된 개인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로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거부, 자기불만이 원인이 되어 부정적인 감정으로 표출되지만,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존경하며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자기발전과 증진을 기대하며 자신을 좋아하는 느낌으로 표출하게 되어 현재에 대해 더 행복을 느끼며 새로운 일을 많이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이인자, 이경희, 신호정, 2012).

Baumeister와 Tice(1985)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로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유능하다고 생각하고, 부정적 자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으며,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목표설정과 노력에 있어서 성공을 거두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핵심 요소의 하나로 신체이미지와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발견되며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은 의복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Freedman, 1990).

2) 자아존중감과 의복 관련 선행연구

의복은 자기를 표현하는 도구임과 동시에 본인의 정체성을 밝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의복은 제 2의 피부로 자아의 확장과 진정한 의미의 신체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며 의복과 자아와 동일시된다(Horn & Gurel, 1981, Kaiser, 1998). Dubler와 Gurel(1984)은 의복을 통하여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며, 사회적 환경에 대한 대처하는데, 우울한 사람들은 자기 개념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복을 이용하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옷을 갈아입으므로 기분전환을 시도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의복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의복행동에 관련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는데 김순구와 윤학자(1986)의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복의 심미성과 관리성은 높았으나, 흥미성, 심리적 의존성, 사회적 승인, 주의집중성은 낮았고, 성인 남녀 대상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은 의복의 관리성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의복의 동조성 및 정숙성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김순구, 박정순, 1990).

한편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의복을 통해 자신을 보다 향상시키고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자기 확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의복에 좀 더 큰 가치를 부여하며(이선재, 1991),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사회적인 승인에 대한 의존도가 적으며 옷을 아름답게 입고 경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높은 관심을 갖게 된다(Humphrey et al., 1971).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의복에서 동조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경자, 김재숙, 2005; 진효정, 임숙자, 1997)

자아존중감과 의복만족도를 연구한 김양진과 강혜원(1992)은 자아존중감과 의복만족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의복을 통해 부정적인 신체적 자아개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의복으로 자신을 표

현하고, 의복의 심미성을 더 추구하며,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의복동조행동을 많이 하는 등 자아존중감과 의복행동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3)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과 의복 관련 선행연구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과 의복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는 의류학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가지는 감정은 그 자신에 대하여 갖는 감정과 유사해서 신체이미지는 특히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가 높으며(정명선, 2003; Lennon et al., 1999),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대해 타인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게 되면서, 때로 신체이미지를 왜곡시키기도 한다고 하였다(Cash, 1994).

또한 신체이미지의 하위차원 중 신체매력, 외모평가,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신체적 매력성 지각은 자아존중감의 가장 중요한 예측변수로(Aune & Aune, 1994; Mahoney & Finch, 1976) 신체매력이 높을수록 타인의 평가를 통해 자기에 대한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어서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하였다(홍금희, 2006; Lerner, 1987). 정명선(2003)은 신체적 매력성 지각이 자아존중감과 일상적 외모관리행동에도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외모관리 노력들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나 자아존중감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을 밝혔다.

둘째, 외모평가와 자아존중감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는 매우 높으며(Heinberg, Thompson, & Stomer, 1995) 신체이미지 평가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은데 이러한 영향은 청소년기와 성인의 초기에 있어 가장 두드러

지며, 성인 이후의 시기가 되면서 그 영향력은 점차 감소한다고 하였다 (Thompson & Heinberg, 1999). 유태순(2013)은 20대 여성은 신체이미지 중 외모평가와 신체만족도는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이며 외모 관심성은 직접효과가 없음을 밝혔다.

셋째, 외모만족과 자아존중감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자신의 외모나 신체만족에 만족하지 못할 때 자아존중감이 낮으며(Rosenblum & Lewis, 1999; Jung, Lennon & Rudd, 2001) 높은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신체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며, 신체이미지의 향상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Lennon et al., 1999; Befort, Kurpius, Hull-Blanks, Nicpon, Huser, & Sollenberger, 2001). 이윤정(2004)은 신체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외모만족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외모에 만족하는 경우에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하여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인과관계를 밝혔다. 황진숙, 김윤희(2006)는 신체만족도는 개인의 자아존중, 자기개념, 자기이미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는데, 자신의 신체에 만족할수록 자신을 존중하며, 신체에 불만족할수록 자신감을 잃고 자신을 비하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자신의 외모, 신체의 매력이나 만족이 높고, 타인의 긍정적인 외모평가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과 의복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첫째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그리고 의복의 관계를 규명하였는데, Sontag과 Schlater(1982)는 의복은 자아의 한 구성요소이고, 자아가 형성되고 확인되는 외모의 한 측면이라고 하였다. 의복은 신체 불만족을 보상해 줄 수 있고 신체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은 의복을 통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하였다. Ford와 Drake(1982)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

가가 높았으며, 신체 만족도는 의복에 대한 세련됨에 대한 느낌과 정적상관이 있었다.

둘째,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과 외모관리행동에 밀접한 관련성을 확인하였고(Keeton & Brown, 1990), 송경자, 김재숙(2005)은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인 사람이 유행에 관심이 많으며 심리적 의복 의존도가 높고 의복을 통한 과시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

셋째,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과 보상소비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도 찾아볼 수 있는데, Mason(1984)는 신체에 대한 태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낮은 자아존중감이나 공허함을 보상해 주려는 동기에 의해 타인이 인정해 주는 사회적 상징물과 경쟁적인 과시소비와 같은 보상소비행동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존재가치가 낮다는 반응을 받으면, 신체이미지에도 손상을 입고, 개인은 제품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실추된 자기개념을 증진시키려 한다. 즉 소비자들은 자신의 어떤 부분에서 불완전함을 느낄 때에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상징물들을 사용하고 소유함으로써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를 일치시켜 불완전성을 보충하려고 한다는 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을 밝혔다(송인숙, 1993; Wicklund & Gollwizer, 1982).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은 정적상관이 있으며 의복은 자아를 표현하는 도구로서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은 의복행동, 외모관리행동, 보상소비행동에도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3. 의복추구혜택

1) 추구혜택의 개념

소비자들은 상품이나, 브랜드, 점포를 파악할 때 속성, 혜택, 가치의 세 가지 차원으로 파악한다. 속성은 상품이나 상표가 지니고 있는 특성에 대한 객관적인 개념이며, 혜택은 상품으로부터 고객이 상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 즉 주관적 만족 또는 충족되는 욕구를 의미하며, 가치는 혜택에서 속성에 지불된 대가의 차이를 뜻한다(박찬수, 2006). 혜택이란 객관적일 수도 주관적일 수도 있는 개념으로 소비자들이 제품 사용으로부터 원하는 주관적 보상이나 기대하는 긍정적 결과를 말한다(Peter & Olson, 1987). 따라서 혜택은 속성이 제공하는 결과물로 소비자는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그 제품의 속성이 부여하는 혜택을 함께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 혜택은 연구자들에 따라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되어 설명되어 진다.

Peter와 Olson(1987)은 소비자 추구혜택을 기능적 혜택, 심리적 혜택, 사회적 혜택으로 구분하였다. 기능적 혜택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소비함으로써 얻는 직접적이고 눈에 띄는 결과이며, 심리적 혜택은 좀 더 개인적이고 눈에 띄지 않는 간접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사회적 혜택은 제품의 사용으로부터 소비자가 느끼게 되는 사회적인 인정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반응을 인지하는 것이다.

Keller(1993)는 혜택을 기능적 혜택, 경험적 혜택, 상징적 혜택으로 분류하였는데, 기능적 혜택은 상품 관련 속성과 상품 비관련 속성으로부터 연상되는, 기본적 동기와 관련된 것이며, 경험적 혜택은 감각적 즐거움이나 다양성, 인지적 자극과 관련된 것으로, 그리고 상징적 혜택은 사회적 승인이나 자기

표현, 자아개념 등 제품의 비본질적인 것이 관련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Aaker(1991)는 심리적 혜택과 합리적 혜택, 2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는데, 심리적 혜택은 해당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는 것을 뜻하며, 상품의 객관적이고 물리적 속성을 합리적 혜택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Lai(1995)는 추구혜택을 기능적 혜택, 사회적 혜택, 정서적 혜택, 인식적 혜택, 심미적 혜택, 쾌락적 혜택, 상황적 혜택과 전반적 혜택으로 8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기 다른 유형의 제품혜택은 상호 연관 될 수 있으며 특정한 소비행동에 있어 혼합되기도 하며, 서로 상충효과를 내기도 하고, 한 제품은 다차원적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상품 그 자체를 원하기보다 상품이 제공하는 편익을 원하기 때문에 상품마다 제공하는 독특한 효용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효용이 일치할 때 소비자는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에 대한 구매행동을 하게 된다. 추구혜택은 특정 제품을 구매할 때, 그 제품에서 얻고자 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언제나 일정한 것이 아니며, 제품을 사용하는 상황이나, 제품의 특성, 소비자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박찬수, 2006). 또한 추구혜택은 인구 통계적 특성, 사이코그래픽(psychographics) 특성과 함께 시장세분화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시장세분화를 통해 마케터들은 숨겨진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소비자들의 인식을 측정하여 새로운 제품개발과 시장개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Solomon & Rabolt, 2004).

2) 의복추구혜택 관련 선행연구

의복추구혜택은 의복의 구매와 착용으로부터 얻으려는 주관적 보상이나 기대하는 긍정적 결과로,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을 설명해주는 주요 변수들 중의 하나이다(이은영, 1999). 즉, 의복을 통하여 의복 자체가 가지는 물리적, 기능적인 속성뿐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감정과 느낌, 가치를 포함하는

혜택을 뜻하며, 소비자의 의복추구혜택을 분석하면 해당 시장의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함께 앞으로의 구매행동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의복추구혜택 연구는 의류 산업 분야의 마케터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안광호, 황선진, 정찬진, 2005). 이러한 의류제품의 혜택에 따른 시장세분화에 대한 연구는 수년 동안 이루어져 왔으며, 소비자행동과 관련한 의류학에서의 추구혜택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혜택세분시장의 확인 및 혜택세분집단의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들이다. 의복추구혜택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의복평가기준과 시장세분화를 위한 의복추구혜택 연구

의복 추구혜택을 의복의 도구적 기능과 표현적 기능을 고려하여 실용성과 미의 추구로 분류하여 의복 평가 기준을 분석한 연구들로, Stemm(1980)은 사회적 모임에서 입는 의복과 직장에서 입는 의복의 혜택의 차원으로 미, 실용성, 품질 등을 제시하였고, 직장을 다니는 여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맥락에서의 의복에 대한 평가기준을 적합성, 경제성, 타인관심성이라고 하였다(Cassill & Drake, 1987; Shim & Drake, 1988).

홍희숙과 고애란(2009)의 의류 상품 선택 시 의복추구혜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실용적 혜택과 사회적 혜택, 심미적 혜택으로 구분하여 경제성과 쾌적성, 내구성, 편의성, 신분 상징성, 자기 성취 과시 및 명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소비자의 의복추구혜택에 따라 집단으로 분류하고 시장세분화를 시도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장세분화란 전체 제품시장을 어떤 기준으로 이용하여 동질적인 세분시장으로 나누는 과정이다. 시장세분화 변수에는 소비자 특성 관련 변수와 상품과 관련된 소비자의 행동적인 변수가 있는데, 행동적 변수에는 추구혜택, 사용상황, 사용량, 브랜드 충성도 등이 있다(안광호 외, 2005).

Jenkins와 Dickey(1976)는 외모와 실용성이라는 2가지 차원을 근거로 하여 소비자를 패션 추구집단, 품질추구집단, 심미·절약 추구집단 및 실용성 추구 집단 등 4개의 세분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Shim과 Bickle(1994)는 미국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복 시장의 의복혜택을 자기개선, 사회적 지위, 성적매력·여성스러움, 패션이미지, 기능적·편안함, 역할상징성, 체형보완, 개성, 성숙한·세련된 표현의 9개 차원으로 구분하였고, 인구통계적 특성이 소비자가 추구하는 혜택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최일경과 고애란(1995)은 진 의류에 대한 대학생들의 추구혜택을 연구하여 브랜드 가치, 개성, 유행성, 실용성 등 4가지 추구혜택 요인에 따라 개성 유행성 관심집단, 브랜드 가치 관심집단, 실용성 관심집단 등 3가지 집단으로 세분하였다.

박혜원(1996)은 의류상품의 물리적, 기능적 속성에 스타일, 이미지를 포함하는 개성관련 속성과 추구하는 주관적인 보상을 의미하는 상징적 속성을 정의하여 연구하였는데, 의류상품의 추구혜택 요인을 상징-심미적 편익 추구집단과 저 편익 추구집단으로 분류하였다.

Park와 Sullivan(2009)은 대학생들의 의복추구혜택과 의복속성평가 및 쇼핑 성향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의복추구혜택을 패션, 신체외모와 인상, 브랜드 가치, 개성표현, 가격, 편안함의 6개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그에 따라 실용성 혜택집단, 쾌락적 혜택집단, 복합적 혜택집단의 3개 집단을 구분하였다. 쾌락적 혜택집단은 의복태도에서 패션과 체형보완 및 브랜드, 개성을 중시하였고, 실용성 혜택집단은 가격과 편안함을 그리고 복합적 혜택집단은 브랜드와 편안함을 중요시하였으며, 각 집단의 쇼핑성향에서는 쾌락적 혜택집단은 쾌락적 쇼핑성향이, 그리고 실용성 혜택집단은 합리적인 쇼핑성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상품 종류에 따른 의복추구혜택에 관한 연구

의류상품에 따라 의복추구혜택에 관한 연구는 유아복, 골프웨어, 아웃도어 등을 찾아볼 수 있는데, 유아복 구매자의 추구혜택을 밝히거나(박옥련, 이지나, 2009), 골프웨어의 추구혜택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이정원, 황진숙, 2009). 최근에는 스포츠웨어나 아웃도어 제품의 추구혜택에 관한 연구가 활발한데 이현경, 이명희(2004)는 스포츠 웨어의 추구혜택을 브랜드, 유행, 외모 매력성, 경제성, 실용성 등의 5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물질주의, 성취관심, 타인의 식 가치가 높을수록 브랜드, 유행성, 외모 매력성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황진숙(2004)은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스포츠웨어 추구혜택을 체형보완·이성어필, 신분과시·유행, 편안함·기능성, 개성, 젊음추구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조선명, 고애란(2008)은 스포츠 소비욕구에 따른 시장 세분화 집단별 라이프스타일과 의복추구혜택 연구에서 편안함-실용성 추구, 이상적체형-인상향상 추구, 개성추구, 최신유행-과시추구, 저렴한 가격제품 추구하고 브랜드 추구로 6개의 차원을 밝혔다.

이영주, 이은옥(2011)은 남성 소비자의 캠핑 아웃도어 의류제품의 추구혜택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연구하였는데 기능성이 가장 중요하며 신분과시와 사회적 인정을 중요한 혜택으로 추구하고였고, 제은숙(2012)은 20-3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웃도어웨어 추구혜택의 차원을 개성추구, 유행브랜드추구, 기능적 실용추구, 세련외모추구의 4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혜택 추구 집단별 의복선택기준과 만족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3) 특정 소비자 집단의 의복추구혜택 연구

최근에는 점차 세분화 되어 특정 소비자 집단에 관한 추구혜택 연구하는 등 시장세분화를 통한 마케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직업에 따른 의복추구혜택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남녀 대학생은 인상

향상, 유행, 개성, 체형보완, 편안함 추구(황진숙, 2003), 20-30대 직장여성은 개성, 사회인정, 유명상표, 실용성, 가격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미야, 2010), 주부는 신분상징성, 유행성, 실용성, 경제성을 추구를 중요시하며(김미영, 이은영, 1991), 전문직 여성은 신분 상징성과 유행성을 추구한다고(정명선, 1992) 하였다. 또한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젊음·유행, 브랜드 가치, 자기표현, 경제성, 품질추구 혜택으로 나누었는데 의복 착용 상황과 소비자 특성은 상호작용하여 의류제품에 대한 추구혜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희숙, 고애란, 1996)

또한 여성의 연령별로 추구혜택을 연구하거나(류은정, 임숙자, 1998; 이연정, 박명자, 2013), 남성소비자(남미우, 김광경, 2003; 조윤진, 2011)의 추구혜택을 분석하는 등 연령, 성별에 따라 특정소비자로 구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실버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년기-노년기 여성 의류시장의 세분화를 시도한 연구(김용숙, 2000; 이진화, 김철순, 2007)와 노년층 소비자의 기능성 소재 추구혜택과 구매행동의 관계를 분석한(홍경희, 최인려, 2009)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신체적 장애를 가진 소비자나(Lamb, 2001) 정신적 장애를 가진 소비자(신현영, 이인자, 2000)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소수 진행되었다. 그러나 유방암 생존자라는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들의 의복추구혜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의복의 사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은 기능성, 편안성, 경제성, 관리편이성, 역할 상징, 자아향상, 자기표현, 체형보완, 자기이미지, 개성, 성적 매력성, 유행성 등이며, 이러한 혜택들은 실용적 혜택, 사회적 혜택, 심리적 혜택, 심미적 혜택으로 4가지로 범주화 되어질 수 있다. (Aaker, 1991; Keller, 1993; Peter & Olson, 1987; Reynolds & Olson, 2001).

첫째, 실용적 혜택은 상품을 구성하는 객관적 또는 물리적 속성들의 총합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실용적인 결과로 의류제품의 기능성, 편안성, 경제성, 관리편이성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사회적 혜택은 타인의 인정이나 호의적인 피드백처럼 사회관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결과를 의미하며 의류 상품을 통해 신분상징, 과시 또는 명성을 얻는 것을 뜻한다.

셋째, 심리적 혜택은 연구자들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상품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측면이나 즐거움 등의 감정적 측면의 긍정적 경험을 의미한다. 의복을 통한 자아향상을 추구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심리적 혜택은 자기표현 혜택과도 밀접하다. 자기표현 혜택은 제품을 통해 자신의 개성이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Aaker, 1991). 그러나 자기표현은 자신을 타인과 차별화하고 자아를 강화하려는 욕구에서 이를 밖으로 드러내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관점에 따라 심리적 혜택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홍희숙, 류성민, 2009). 그러나 옷의 디자인이나 스타일 등을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표현이 얼굴, 체형, 나이, 자기이미지 등과의 조화 또는 나만의 독특성을 통해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본다면 심미적 혜택추구로도 볼 수 있다.

넷째, 심미적 혜택으로 상품이나 상품의 사용을 통한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의복을 통해 자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자기이미지, 유행성이나 패션성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심미적 혜택은 아름다움 자체가 착용자의 기분을 좋게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심리적 혜택의 일부로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유행성이 시대적 미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심미적 혜택으로 볼 수 있지만, 유행이라는 사회적 소비 트렌드. 유행경향이 반영된 상품의 구매를 통해 동질감을 느끼고 심리적 안정을 얻기 원한다면 심리적 혜택으로도, 또한 타인들로부터 호의적인 평가

와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려는 욕구가 있다면 사회적 혜택의 한 유형으로 범주화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복추구혜택을 실용적 혜택, 사회적 혜택, 심리적 혜택, 심미적 혜택, 이 4가지 범주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4. 유방암

1) 유방암의 일반적 특징

암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변화와 성장이 조절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유방암은 유방에 이러한 악성 종양세포가 발생하는 것으로 유방암 치료는 암세포의 절제수술 및 보조적 치료를 수반하는데, 암세포의 크기와 위치 그리고 병의 심각성(병기)에 따라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전절제술 또는 일부를 수술하는 부분절제술(유방 보존술)등의 수술을 받게 된다(노동영, 2009). 조기발견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점차로 부분절제술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2000년에 27.9%에 머물렀던 부분절제수술의 빈도가 2011년에는 65.7%를 차지해, 유방암을 진단받더라도 반수 이상의 환자가 자신의 유방을 보존하게 되었다(한국유방암학회, 2013). 전절제 수술의 경우, 신체의 외형의 손상뿐 아니라, 좌우 불균형으로 인한 어깨통증 및 척추측만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어서, 최근에는 가능하다면 수술과 동시에 유방복원술을 시행하여 여성성 보존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다. (정명진, 2012; Al-Ghazal, Fallowfield, & Blamey, 1999, 2000; Nano, Grantly, Kollias, Bochner, Malycha, & Winefield, 2005).

유방암 수술 중 전이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가슴에서 팔로 연결되는 겨드랑이에 있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림프절을 제거하고, 암세포가 존재하는지를 조사한다. 보통 겨드랑이를 2-3cm 정도 절개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팔의 활동성이 제약되어, 의복을 착용하는데도 불편함을 야기하게 된다. 또한 전이가 확인될 경우, 림프절을 절제하는 수술을 실시하는데 그 결과 림프절 절제술을 실시한 여성의 10-25%에게서 팔과 손이 붓는 림프부종이 야기되기도 한다(Kaelin, 2008). 림프부종을 경험하는 환자들은 팔이 부어서 의복을 선택하

고 착용할 때에 불편을 겪는다.

수술 후 치료는 병기와 수술 방법과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그리고 호르몬 요법이 이어진다. 항암화학요법은 항암제를 주사하여 혈류를 통해 암세포를 파괴하거나 성장을 느리게 하는데 그 부작용으로 머리카락, 눈썹 등에 탈모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암환자들이 치료과정 중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호소하며, 급격한 외모변화로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윤수, 2007; 임인숙, 2006; White, 2000b). 방사선 치료는 피부 가려움증이나, 피부 톤의 변화, 그리고 일부 환자는 치료를 위한 신체의 마킹에도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Al-Ghazal et al., 2000; Helms, O'Hea, & Corso, 2008; Hood, 2010). 치료기간은 짧게는 수술로 종료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지속되며,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마치더라도 그 이후에도 항호르몬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는 5년 정도 지속적인 약제를 복용하게 된다. 호르몬의 변화로 폐경이 일찍 오기도 하며, 이것은 젊은 유방암생존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끼쳐 여성성 상실에 의한 심리적 위축을 경험하게 된다(민연기, 김종한, 조성진, 김남렬, 구범환, 황정웅, 배정원, 2001; Ganz, Coscarelli, Fred, Kahn, Polinsky, & Petersen, 1996).

따라서 오늘날 유방암 치료는 단순히 암을 제거하는 외과적 수술뿐 아니라 치료 후 살아가야 하는 일상의 삶에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Ganz, 2003, Macmillan cancer support, 2013).

2) 유방암생존자 관련 선행연구

유방암생존자는 수술과 치료 과정을 거치며 항암치료를 통해 탈모, 치료로 인한 피로, 호르몬 변화에 따른 체중 증가 등으로 외모의 치명적인 손상으로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며 부적응적인 심리 사회적 결과를 유발하게 된다 (Aronowitz, 2007; Dahl et al., 2010). 계속 증가되는 유방암생존자들의 사회 심리적 변화와 그에 따르는 적절한 치료와 사회적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 되고 있다.

(1) 유방암생존자 심리관련 선행연구

유방암생존자에 관련된 연구는 간호, 심리학계에서 질적 연구를 통해 사회 심리적 경험을 조사한 연구(전명희, 1994; 이윤수, 2007; 윤미라, 송미순, 2013)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유방암생존자들은 신체의 변화로 여성성을 손상되었다고 느끼며(Lindop & Cannon, 2001; Kunkel, Chen, & Okunlola, 2002), 이러한 변화가 자아존중감, 우울, 건강,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김수현, 전은영, 이원희, 2006; 김윤선, 태영숙, 2011; 정경숙, 박금자, 2007). 또한 태영숙, 권수혜, 최정화와 이애란(2013)은 유방암생존자의 신체상과 우울은 역 상관관계가 있으며 유방암생존자의 25%정도가 중증도의 우울 겪는다고 하였다.

유방암생존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채영란(2005)은 유방암 절제술을 받은 여성의 삶의 질은 우울과 지각된 건강상태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고, 서연옥(2007)은 진단과 치료 시에는 신체적 영역의 삶의 질이 저하되며, 치료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심리, 사회적 영역의 삶의 질이 저하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유영미, 이명선(2013)은 전절제 수술을 받은 여성이 부분절제수술을 받은 그룹보다 삶의 질이 낮음을 발견하였으며 황숙연(2009)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외국보다 삶의 질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신체이미지와 정신적 건강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Figueiredo, Cullen, Hwang, Rowland, & Mandelalatte, 2004) 신체이미지가 낮으면 질병 극복력과 삶의 질이 낮으며, 높은 염려, 우울을 가진다고 하였다(Bloom, Stewart, Chang, & Bank, 2004; Moreira & Canavarro, 2010; Moreira, Crespo, Paredes, Silva,

Canavarro, & Dattilio, 2011).

(2) 유방암 환자 신체이미지 관련 선행연구

유방암 환자의 신체이미지를 외모만족, 성기능, 외모투자, 신체존중감, 유방암환자 삶의 질 측정도구(EORTCQLQ-BR23)등의 다양한 척도를 사용하여 유방암 수술 이후의 신체이미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arver 등(1998)은 6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당일, 1주, 3개월, 6개월, 그리고 12개월 후 신체존중감과 외모관리행동을 측정하였는데, 외모 관리 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환자들은 일반적인 외모매력, 여성성에 있어서 더 회복이 좋았으나 사회성이나 여가성에는 역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외모관리행동은 감정적 기능과 관계의 질을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로써 종양학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신체이미지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고하였다.

한편, White(2000a)는 암환자의 신체이미지가 어떤 인지과정을 통해 형성되는지를 규명하는 경험적 인지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의료진과 연구진들은 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신체부위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 신체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환자들은 외모의 변화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더 경험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Begovic-Juhang와 Chmielewsky(2010)는 미국에서 2005-2011년 사이에 진단받은 23-70세의 유방암생존자 70명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 신체매력과 여성성이 우울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는데, 대부분의 응답자가 매력과 여성성이 떨어졌다고 느꼈고, 절반이상의 환자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Moreira와 Canavarro(2010)은 포르투갈에서 56명을 대상으로 수술시 그리고 6개월 후에 외모관심, 외모지각, 수치, 외모만족으로 신체이미지와 삶의

결과 우울정도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치심이 높아졌으며, 신체이미지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다차원적 신체이미지(MBSRQ) 척도를 사용하여 유방암생존자와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도 찾아볼 수 있는데, Sabiston 등(2010)은 캐나다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은 여성 469명과 일반여성 385명을 대상으로 MBSRQ의 척도 가운데 외모평가, 외모관심, 신체부위별 만족도, 체중관심, 그리고 몸무게평가 척도로 다차원적 신체이미지를 측정하였다. 유방암 수술 집단의 연령은 28세에서 80세이고, 수술 년도는 몇 달 전부터 32년 전인 여성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모집단을 수집하여 연구하였다. 그런데, 연구결과 유방암 수술을 받은 집단이 일반 집단보다 오히려 외모평가는 조금 높게, 그리고 외모관심은 조금 낮게 나타났다. 이는 수술집단의 모집단이 평균 5년 전에 유방암 수술과 치료를 받아 시간이 경과하며 신체이미지가 다시 회복되었고, 모집단의 평균연령이 50대 후반으로 신체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외모관심은 낮고, 외모평가가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설명하였다.

즉, 신체이미지가 높은 유방암생존자는 자기 효능감이 높아 질병을 극복하고 회복하는데 긍정적이었으며, 낮은 신체이미지는 외모에 대한 만족하지 못하며, 여성성의 손상과 신체 손상에 대해 높게 지각한다고 하였다(Cohen, Kahn, & Steeves, 1998; Compas, 2002; Hormes, Lytle, Gross, Ahmed, Troxel, & Schmitz, 2008; Unukovych et al., 2012).

(3) 유방암 환자 신체이미지 척도관련 선행연구

유방암 수술한 환자의 신체이미지를 일반적인 측정도구로 측정하다보니, 질병으로 야기된 신체일부의 손실, 여성성의 손상이나, 또한 팔의 운동성이나 신체활동의 제약 등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해 객관적인 신체이미지 측정을 돕고자 척도개발에 관련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Hopwood 등(2001)은 암환자들의 신체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 신체

이미지 척도(Body Image Scale use for Cancer Patient: BIS)를 개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신체이미지와 연관된 5문항과 암수술과 관련된 5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를 사용하여 Dahl 등(2010)은 유방암생존자 24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술 후 4년, 7년 후 2번에 걸친 종단연구를 통해 신체이미지를 측정하였는데, 신체이미지 점수는 시간이 지나도 거의 변함이 없는 것을 발견했고, 신체이미지는 수술방법, 방사선치료, 우울, 삶의 질과 연관이 있어, 신체이미지와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Moreira 등(2011)은 신체이미지(BIS)의 변화는 우울과 다른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며, 낮은 신체이미지는 낮은 삶의 질과 낮은 정신건강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강동우(2012)와 김창엽(2013)은 BIS로 국내 유방암 환자의 신체이미지를 측정하고, 척도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둘째, Baxter 등(2006)의 연구진은 암환자들 가운데서도 유방암 수술을 경험한 환자들의 신체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Body Image after Breast Cancer Questionnaire; BIBCQ)를 개발하였다. 신체 취약성(vulnerability), 신체 불완전성(body stigma), 신체활동 제약성(limitations), 신체 관심성(Body concerns), 타인시선인식(transparency), 그리고 팔 활동성 염려(arm concern)인 6개의 하위 척도,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신체이미지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환자를 이해하고 전인격적 치료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 취약성은 유방암에 대한 질병에 대한 우려와 관련된 것으로 재발가능성, 암세포 전이 등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며, 신체 불완전성은 수술로 인한 신체 일부의 상실과 관련된 것으로 신체 외형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신체 활동 제약성은 수술 후 신체 활동에 제약에 대해 측정하며, 신체 관심성은 신체에 대한 관심과 관심성을 의미한다. 또한 타인시선인식은 신체 외형의 변화에 따른 타인의 시선을 인식하는 정도를, 팔 염려는 수술 후 팔의 모습 변화와 불편함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

는 유미숙, 이세연(2010)이 BIBCQ의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였고, 김영란(2010)은 유방암 절제술을 받은 여성의 신체이미지와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에서 BIBCQ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의 신체이미지가 서구의 연구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이미지가 유방암생존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밝혀냈다.

(4) 유방암 수술방법에 따른 신체이미지 관련 연구

수술 방법에 따라 신체이미지를 고찰한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전절제 수술이 유방을 보존하고 일부만을 수술하는 부분절제 수술을 한 여성들보다 신체이미지의 손상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Fobair, Stewart, Chang, D'Onofrio, Banks, & Bloom, 2006; Kalaitzi, Papadopoulos, Michas, Vlasis, Skandalakis, & Filippou, 2007; Nano, Grantly, Kollians, Bochner, Malycha, & Winefield, 2005).

Schain, Wellisch, Pasnau & Landsverk(1985)은 전절제 수술을 한 환자와 전절제 수술 후 복원수술을 한 환자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이미지와 성기능이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부득이하게 전절제 수술을 하는 경우에 복원수술은 신체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

Al-Ghazal 등(2000)은 영국의 유방암 수술 환자 577명을 대상으로 부분절제 수술, 전절제 수술, 그리고 전절제 후 복원수술을 실시한 세 집단으로 나누어 심리적 변인을 조사한 결과 염려, 불안, 신체이미지, 여성성, 자아존중감은 부분절제 집단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전절제 후 복원수술을 한 집단이 그 뒤를 따랐다.

Engel 등(2004)은 독일에서 1996-98년에 유방암 수술을 한 27-91세 여성 99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전절제 수술을 받은 여성은 부분절제수술을 받은 여성보다 낮은 신체이미지와 성역할, 성기능을 가지게 됨을 확인하였다. 5년 후에 다시 측정한 결과 미래에 대한 건강점수와

삶의 질 점수는 개선이 되었으나, 신체이미지, 성기능 점수는 개선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Harcourt & Rumsey (2006)는 전절제 수술환자와 전절제·복원수술환자 103명을 대상으로 수술 전, 수술 후 6개월, 12개월 후에 염려, 불안, 신체이미지와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복원수술은 일부여성들에게는 심리적 유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술 후 1년이 경과 후, 심리적 변인들은 개선이 되었지만, 복원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신체이미지에 손상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Dalton 등(2009)은 미국에서 수술한지 1년이 지난 유방암 환자 353명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와 기분, 우울, 스트레스, 질병적응 등 사회심리학적 변인을 측정하였는데, 전절제 수술이 부분절제보다 신체이미지의 손상을 더 많이 초래함을 확인하였다.

Collins, Liu, Schootman, Aft, Yan, Dean, & Jeffe(2011)는 미국의 유방암 수술환자 549명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를 측정하였는데, 신체이미지는 부분절제 수술집단, 전절제 후 복원수술을 한 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술 후 2년이 지나 다시 측정한 결과에서는 수술방법에 따른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수술 후 부작용에 따라 신체이미지에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즉, 림프부종으로 인해 팔이 많이 붓거나, 항암 부작용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 피부손상 등의 부작용이 심한 여성은 낮은 신체이미지를 가지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유방을 완전히 절제하는 전절제 수술을 받은 여성이 부분절제 수술을 받은 여성보다 신체이미지의 손상이 더 크게 나타나며, 복원수술은 신체의 복원뿐 아니라, 심리적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 유방암 환자의 신체이미지 개선 관련 연구

신체이미지에 대한 연구의 또 다른 방향은 신체이미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나 제안을 찾아볼 수 있다.

Anderson과 Johnson(1994)은 암환자의 외모를 개선시키기 위한 뷰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 증진에 정적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2002년 프랑스의 Gustav Roussy Cancer Institute(IGR)는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미지 컨설팅과 사회적 미용관리(socio-aesthetics)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Cosmetic Executive Women이라는 미용사협회와 관련 기업들을 통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술 후 치료로 인한 외모변화를 개선시키도록 하였다(Amiel et al, 2009). 또한 58명의 유방암 여성을 대상으로 병원에서 뷰티케어를 제공하며 그들의 회복과정을 관찰하였는데, 뷰티케어를 통해 치료로 인한 부작용의 크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과정을 받아들이고 극복해 가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환자들은 통해 물리적 치료를 넘어 “전인격적 인간(whole person)”으로 인정받는다고 응답해 외모관리와 신체이미지의 증진이 암과 함께 살아가는 암 생존자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였다(Amiel et al., 2009).

Hood(2010)는 신체이미지를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e-learning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자들에게 워크북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였고, 신체이미지는 환자의 치료 수준에 따라, 시점에 따라 다름을 확인하였다.

Begovic-Juhang와 Chmielewski(2012)는 미국에서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사, 전문 상담가와 함께 팀을 이루어 수술 이후에 자아존중감, 자아인정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미용전문가와 개인 트레이너가 함께 신체적 매력을 회복하게 해주며, 네일케어, 피부관리, 가발, 스카프 등을 사용한 미용서비스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유방암 수술을 받은 여성들은 신체이미지가 저하되며,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 및 불안 등 심리적 변인들과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수술방법이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BSRQ 를 이용하여 다차원적 신체이미지를 측정 한 후, 유방암생존자들에게는 유방암수술과 관련된 신체이미지를 추가로 측정하였고 이를 통해 수술 방법 간 신체이미지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3) 유방암생존자와 의복 관련 선행연구

유방암생존자의 의복행동이나 의복추구혜택에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주로 전절제 수술한 여성들의 인조유방이나 브래지어에 관련된 연구와 유방암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언급된 의복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인조유방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Goffman(1963)은 전절제 수술을 한 여성들은 사회적 상흔을 가지게 되는데, 의복을 입을 때마다 질병 흔적을 확인하며, 이를 감추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인조유방과 의복으로 상흔을 숨기는 적극적인 외모 관리행동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조유방을 착용 시 과반수의 여성들이 몸에 잘 맞지 않고, 피부가 가렵고, 무겁고, 덥게 느끼는 등 실제적인 고통이 있다고 하였고(Tish-Knof, 1985), 979명의 전절제 수술을 한 여성들은 건강에 대한 염려와 함께 인조유방의 피팅, 가슴의 좌우 불균형, 의복 착용 시 가슴이 보일까에 대한 걱정 등을 중요한 문제로 지각한다고 하였다(Feather, Rucker, & Kaiser, 1989).

Feitelberg와 Monget(2003)는 유방암생존자들의 브래지어와 속옷에 대한 연구에서 전절제 수술을 한 여성이 착용하는 인조유방은 실리콘 패드와 같은 것이어서 브래지어 안에 잘 넣어서 착용을 해야 하는데 의복을 입었을 때,

몸매를 잘 살릴 수 있어야 하고, 포켓기능이 있는 브래지어여야 하며, 인조유방은 반대편 유방과의 무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일랜드에서 전절제 수술을 받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조유방 착용에 관해 실시한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인조유방이 무겁고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며, 인조유방용 브라는 여성스럽지 않아 불만족하였으며, 면으로 된 브라를 원하는데 많은 제품들이 합성소재로 만들어져 땀과 자극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또한 인조유방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운동이나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게도 되는데 특히 수영, 일광욕, 의복 구매 시 인조유방으로 인해 가장 영향을 받는다고도 하였다(Gallgher, Buckmaster, O'Carroll, Kieman, & Geraghty, 2009).

국내연구로는 이경미, 최혜선(2001)의 전절제 수술을 한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암 환자용 브래지어 착용실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1999년 서울시내 병원에서 전절제 수술을 받은 여성을 대상으로 2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인조유방은 수입되는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한정성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신체적합성이나 보정물의 무게로 인한 불편함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인조유방을 브래지어와 함께 착용함에 있어서 오랜 시간 착용 시 답답하고,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파인 옷이나 얇은 옷을 입었을 때 브래지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은영, 최순란, 강희선(2012)은 유방암생존자의 인조유방 사용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를 통해 인조유방이 무겁고 편안하지 않아 외출 시에만 착용하고 집에서는 거의 착용을 하지 않았으며, 인조유방용 브라의 선택의 폭이 좁고, 착용감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을 발견하였다.

유방암생존자의 의복행동을 조사한 연구로는 Feather와 Lanigan(1987)의 연구를 찾아볼 수 있는데, 전절제 수술을 한 여성의 절반 정도가 수술 후 가슴의 불균형으로 인해 몸의 실루엣이 드러나는 얇은 소재의 의복은 입지 않

는다고 하였고, 가슴을 강조하거나 어깨를 많이 드러내는 디자인을 지양하며, 수영복, 잠옷, 또는 파티복 등의 착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 수술 후 의복 행동에 변화가 있음을 밝혔다. Chang, Hodges 와 Yurchism(2013)은 암수술을 한 여성을 포함해 신체에 장애가 있는 여성 소비자 9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이들은 의복으로 자신의 기능성, 자아표현, 사회적 가치 표현, 자아존중감을 표현함을 발견하였고, 역경을 지나 다시 일상에 돌아온 이들의 승리의 상징(symbols of victory)으로 의복을 선택하고 착용한다고 기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유방암생존자들에 관한 의복행동 연구는 주로 전절제 수술을 한 여성들의 브래지어나 인조유방에 한정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질적 연구를 통해 유방암생존자들은 수술 후 의복행동에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의복추구혜택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방암생존자들의 의복추구혜택을 일반여성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 유방암생존자 집단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유방암생존자의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의복추구혜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성인여성의 의복추구혜택의 차원을 밝히고 유방암생존자의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의 차원을 밝힌다.

연구문제 2.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의복추구혜택을 알아본다.

- 1)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다차원적 신체이미지를 알아본다.
- 2)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자아존중감을 알아본다.
- 3)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의복추구혜택을 알아본다.
- 4)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의복추구혜택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유방암생존자 집단 내 수술방법과 병기에 따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의복추구혜택,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를 조사한다.

- 1) 수술방법에 따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의복추구혜택,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를 조사한다.
- 2) 병기에 따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의복추구혜택,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를 조사한다.

연구문제 4. 성인여성의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과 의복추구혜택의 관계를 밝힌다.

- 1)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밝힌다.
- 2) 자아존중감과 의복추구혜택의 관계를 밝힌다.
- 3)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와 의복추구혜택의 관계를 밝힌다.
- 4)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의 하위요인과 의복추구혜택의 하위요인간의 관계를 밝힌다.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유방암생존자의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과 의복추구혜택에 관한 연구로 설문지 구성을 위하여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탐색조사, 예비조사 및 본 조사를 통해 실증연구가 진행되었다.

1) 탐색조사

유방암생존자의 의복추구혜택에 관련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설문 문항도출과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 중 초점집단면접 (focus group interview)을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면접 대상자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유방암 수술을 받은 유방암생존자로 하였으며, 포털사이트 D사의 유방암 관련 카페에 대략적인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면접대상자를 공개모집 하였다. 이와 함께 면접대상자에게 주변의 유방암 생존자를 제안 받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병행하여 30대 10명, 40대 6명, 50대 2명의 총 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면접방법은 Patton(2002)의 면접 지침 법을 따라 진행되었다.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로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는 익명성의 보장과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그리고 참여자가 원하면 인터뷰를 중도에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면접은 Spradley(1980)의 발전식 연구순서(development research sequence)를 따라 일반적 질문에서 구체적 질문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준비단계로 일상에 대한 간단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친밀감을 형성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면접진행은 '유방암 수술 후 의복을 선택하고 구매에 관련된 경험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로 시작하였고, 진행과정에서 '수술과

치료에 관련되어 신체이미지에 변화가 있다고 느끼는지' '수술 전과 비교하여 의복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더 고려하는지' '의복을 구매할 때 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였다. 진행과정 동안 참여자들 모두가 골고루 자신의 경험과 견해를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다. 면담종료 전에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 외에 의복에 관련하여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은 없으신지요?' 라는 마무리 질문을 하여 관련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참여자가 말한 내용 중 이해되지 않거나 모호한 내용은 추가 질문으로 자세히 설명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통해 준비한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와 의복추구혜택 문항들에도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의미가 모호한 점들이 있는지, 영어의 원 의미가 번역 과정에서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종료 후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초점 집단면접의 모든 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집단별 평균 약 3-4시간이 소요되었다. 녹음된 면담내용은 필사하여 정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의복추구혜택에 대한 8문항과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 1문항을 도출하였다. 탐색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항들은 <표 1>과 같다.

2)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선행연구와 탐색조사로 선정된 문항들로 설문조사를 구성하여 2014년 2월 유방암 수술 경험이 있는 여성 21명과 일반여성 35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문항의 어휘나 이해가 어려운 문항들을 수정하여 안전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문항들을 자연스럽게 보완하여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의복추구혜택, 그리고 유방암생존자용 신체이미지 문항을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토를 통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설문 문항 가운

데, 선행연구를 토대로 영어를 번역해서 사용하는 문항들은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2명의 의류학 전공자와 번역 전문가 2명으로 하여금 문항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표 1> 탐색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항

변 수	문 항
의복 추구 혜택	실용적혜택 (기능성) 추운 날씨에는 멋있게 입는 것보다, 보온성 있는 의복을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회적혜택 나는 옷을 선택할 때, 경량성(가벼운지)을 중요하게 여긴다.
	심리적혜택 (보상심리) 건강하게 보이도록 옷을 입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심리적혜택 (여성성) 좋은 의복을 선택하면서 '나는 이 정도는 받을 만하다' 고 생각 하곤 한다.
	심리적혜택 (여성성) '나는 소중한니까' 라고 생각을 하며 쇼핑을 하곤 한다.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	나를 위한 선물로 의복을 구매하기도 한다.
여성성상실	옷을 선택할 때, 더욱 여성스럽게 보이게 하는지 고려한다.
	나는 여성스러움이 표현될 수 있는 의복을 선호하는 편이다.
	나이보다 이른 폐경으로 인해 실망감이 든다.

3) 본조사

본조사는 2014년 3월 3일부터 3월 15일까지 웹 설문 전문 회사인 S사의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유방암생존자들을 만나 설문조사를 실시함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 대표 포털 사이트인 N사와 D사의 유방암 관련 최대 회원 수를 확보하고 있는 두

카페에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D사의 스카페는 설문조사를 금지하고 있어 설문조사 안내 글을 게시한 후,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설문지의 인터넷 주소(URL)를 발송하여 설문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N사의 ○카페에서 운영진의 허락을 받아 카페 게시판에 설문조사를 공지하고 작성된 설문지의 인터넷 주소(URL)를 게시하여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작성된 설문지의 설문 참여의 보상으로 커피쿠폰이 발송됨을 공지하여 설문 참여율과 불성실한 설문을 최소화하였다.

설문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하여, 유방암생존자들의 설문을 완료한 후, 완료된 연령층의 비율을 참고하여, 일반 여성의 연령별 응답자의 비율을 할당량을 설정하여 편의표집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응답조건을 설정하였다. 첫째, 설문 진행시 건너뛰거나 일부 질문을 누락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해당 페이지에서 설문을 완료하지 못하면 다음 페이지의 질문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설정하였으며, 설문 진행시 응답을 원하지 않는 설문자는 ‘설문종료’ 단추를 클릭함으로 설문을 종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각 설문 문항들은 구성요소에 따라 페이지를 구성하였으며, 각 질문의 보기들은 무작위로 배치되도록 설정하였다. 즉, 각 응답자마다 보기의 예가 달라지므로 보기 순서에 따른 설문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셋째, 한 명의 응답자가 중복하여 답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개의 IP 주소당 1번만 설문에 응할 수 있도록 IP 주소를 통제하였다. 넷째, 동일한 설문지에서 “귀하는 혹시 유방암 수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예”로 응답하면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와 수술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하도록 설문을 디자인 하였으며, “아니오”로 응답하면 인구통계적 질문으로 바로 이동하여 설문을 마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620부를 확인하였으며, 이 중 성실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

하고 유방암 집단 207명, 일반여성 333부, 총 54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탐색조사 및 예비조사를 통하여 본조사에 사용될 문항이 구성되었으며 설문지의 구성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에 관한 45문항, 자아존중감에 관한 10문항, 의복추구혜택에 관한 29문항이며, 유방암생존자의 경우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에 관한 20문항과 수술에 관련된 5문항을 추가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연령, 결혼상태, 학력, 직업 및 소득에 관한 5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거의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본 조사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신체이미지는 자신의 전반적인 신체에 대한 평가, 느낌이나 행동을 말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Brown 등(1990)의 다차원적 신체 자기 관계 질문지(MBSRQ)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MBSRQ 설문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공인된 웹사이트(<http://www.body-images.com>)에서 설문지 문항을 유료로 구매하고 연구를 위한 문항 사용을 허락 받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MBSRQ는 감정적 차원과 인지·행동적 차원을 측정하는데, 감정적 차원인 ‘평가(evaluation)’ 척도는 외모평가(AE), 체력평가(FE), 건강평가(HE), 신체부위별 만족도(BS)와 몸무게평가(WT) 5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외모, 체력, 건강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인지·행동적 차원인 ‘관심(orientation)’ 척도는 외모관심(AO), 체력관심(FO), 건강관심(HO), 질병관심(IO)과 체중관심(OP) 5개의 하위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외모, 체력, 건강, 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적극적인 태

도와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

의류학계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외모와 관련된 외모평가, 외모관심, 신체 부위별 만족도 및 몸무게평가 등의 척도를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사용하고 있는데(김선희, 2003; 이미숙, 송경자, 2009; 조선명, 고애란, 2001; 추태귀, 2002; 하주연 등, 2005), 본 연구에서는 유방암생존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로 체력, 건강, 질병에 관한 척도들도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MBSRQ의 전체 하위척도 10개 영역을 모두 사용하여 연구를 설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강소영(2003)이 번안한 문항을 바탕으로 의류학 전문가 2인과 번역 전문가 2인의 도움을 받아 검토를 하여 잘못 번안되거나 문화적 차이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한 문항들을 수정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45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타당성이 검증되었으며(Cash, 2000; Rusticus & Hubley, 2006), 본 연구의 하위척도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2>와 같다. 체력평가(FE)와 건강평가(HE)에 있어서는 .47과 .38로 신뢰도가 확보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강소영(2003)의 연구와도 비슷한 결과로, 몸(body), 체력(fitness), 신체적(physical), 건강(health), 질병(illness)등으로 구성된 문항들이 번안과정에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차이에 의해 원 척도의 의미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본인의 체력을 평가하고,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하위척도들이 체력, 건강, 질병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 조사대상자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점 역시 MBSRQ 척도의 개발자인 Brown 등(1990)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자들 가운데는 최근 큰 수술을 통해 체력, 건강 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지각하는 수준과 현실의 수준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MBSRQ에 대한 전체 신뢰도 값은 .88로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2>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하위척도

하위 척도 / 대표 문항	문항수	Cronbach's α
감정적 차원 : 평가(evaluation) 척도		
외모평가 (Appearance Evaluation; AE) 나는 현재 내 모습 그대로를 좋아한다.	4	.71
체력평가 (Fitness Evaluation; FE) 내 몸은 신체적으로 균형이 잡혀있다.	2	.47
건강평가 (Health Evaluation; HE) 내 건강상태는 어느 날은 좋았다가 금세 나빠지곤 해서 중잡을 수가 없다.	3	.38
신체부위별 만족도 (Body Satisfaction; BS) 나는 내 얼굴(얼굴 생김새, 혈색)에 만족한다.	9	.77
몸무게평가 (Weight; WT) 본인 및 타인의 몸무게평가	2	.90
인지·행동적 차원 : 관심(orientation) 척도		
외모관심 (Appearance Orientation; AO) 외출하기 전, 나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신경을 쓴다.	7	.78
체력관심 (Fitness Orientation; FO) 나는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6	.77
건강관심 (Health Orientation; HO) 건강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5	.69
질병관심 (Illness Orientation; IO) 나는 조금이라도 아프면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4	.69
체중관심 (Overweight Preoccupation; OP) 나는 현재 살이 찐 것은 아닌지, 체중 증가를 항상 걱정한다.	3	.67
전체 MBSRQ	45	.88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척도를 전병제(1974)의 한국번역판을 토대로 최정아(199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데 총점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가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또는 ‘대체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를 들 수 있다. 5개의 긍정적 문항과 5개의 부정적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정적 문항은 역코딩 후 환산하였으며, 총 10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 값은 .85로 신뢰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의복추구혜택

의복추구혜택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은희(2012), 조선명과 고애란(2001, 2008), 조윤진(2011), 추태귀(2002), 해주연 등(2005), Shim과 Bickle (1994)의 연구를 토대로 실용적 혜택(기능성, 편안성), 사회적 혜택 (사회인정), 심리적 혜택(자기이미지), 심미적 혜택(유행성, 체형보완)과 같은 4가지 범주의 21문항을 추출하였다. 또한 유방암생존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용적 혜택(기능성), 사회적 혜택, 심리적 혜택(보상 심리, 여성성)에 관련된 8문항을 추가하여 총 29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들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들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수정 보완하여 총 29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설문 시 의복의 범주는 외출복으로 선정하여 외출복을 통해 얻고자 하는 유익이나 기대하는 편익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문항의 전체 신뢰도는 .89로 연구에 충분한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방암생존자의 수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이미지를 측정하였다. Baxter등(2006)의 유방암환자 신체이미지 척도인 BIBCQ를 유미숙, 이세연(2010)이 번안한 문항과 Hopwood등(2001)의 암환자신체이미지 척도(BIS)를 김창엽(2013)이 번안한 문항을 근거로 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19문항을 추출하였다. 또한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1문항을 추가하였다.

먼저 BIBCQ에서 추출된 17개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방암에 대한 질병에 대한 우려, 재발가능성 등에 대한 인식에 관련된 4문항, 수술로 인한 신체 일부의 상실과 불완전한 외모에 대한 인식에 관련된 5문항, 수술 후 신체활동 제약과 일상생활 불편에 관련된 3문항,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지각 3문항, 그리고 수술로 인한 팔의 변화와 염려에 관련된 2문항이다.

또한, BIS에서 여성성 상실에 대한 2 문항을 발췌하였고,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발견된 ‘나이보다 이른 폐경으로 인해 실망감이 든다.’ 는 1 문항을 추가하여 총 20문항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본인의 신체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다차원적 신체이미지(MBSRQ)와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body image after breast cancer: BIABC)’로 명명하기로 한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88로 연구를 위한 신뢰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구성과 문항은 <표 3>과 같다.

<표 3> 설문지 구성

구분	측정변인	문항수	출 처
I 부	신체이미지 (MBSRQ)	44	Cash(2000)
II부	자아존중감	10	Rosenburg(1965)
III부	의복추구혜택	29	박은희(2012), 조선명, 고애란(2001, 2008), 조윤진(2011), 추태귀(2002), 하주연 등(2005), Shim & Bickle(1994), 연구자
IV부	인구통계적 변수	5	연구자
V 부 ⁺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 (BIABC)	20	Baxter et al.(2006), Hopwood et al.(2002), 연구자
	유방암 수술 관련문항	5	김창엽(2013), 유미숙, 이세연(2010)

⁺수술 여부에 따른 추가 문항

4.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유방암생존자의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의복추구혜택에 관한 연구로 30-50대의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령을 30-50대로 선정한 것은 연령별 유방암 발생빈도가 40대가 가장 높고, 50대, 30대 순인 통계를 근거로 하였으며(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13), 유방암생존자 단일집단만을 대상으로 연구할 경우 소비자특성을 명확히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여성과의 비교를 통해 유방암생존자 집단의 소비자 특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총 540명 조사대상자 중 유방암생존자는 207명(38.3%), 일반여성은 333명(61.7%)이었으며, 조사대상자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30대 236명(43.7%), 40대가 235명(43.5%), 50대 69명(12.8%) 이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 417명(77.2%), 미혼 107명(19.8%) 그리고 기타(사별 및 이혼)가 16명(3%)이었으며,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자가 266명(49.1%)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96명(17.8%), 2년제 대학교 졸업 89명(16.5%), 대학원졸 이상이 90명(16.7%) 순으로 확인되었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232명(4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사무직(회사원, 행정공무원, 사무원 등)이 136명(25.2%), 판매, 서비스직(음식숙박업, 자영업자, 이미용, 소규모 가게 운영, 외판원, 생활설계사, 판매원 등)이 51명(9.4%), 기타 19명(3.6%), 그리고 경영관리직(고급공무원, 중소기업사장, 대기업 고위간부 등) 9명(1.7%) 순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응답자들의 월평균 총소득은 200-400만원 미만 179명(33.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400-600만원 미만 150명(27.8%), 600-800만원 미만 67명(12.4%), 200만원 미만 59명(10.9%), 1000만원 이상 48명(8.9%) 그리고 800-1000만원 미만 37명(6.9%) 순으로 확인되었다.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대체로 고르게 분포된 연령, 결혼, 학력, 직업, 및 소득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로 조사되어 두 집단이 고르게 표집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4>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유방암생존자 (N=207)		일반여성 (N=333)		전체 (N=540)	
	빈도	(%)	빈도	(%)	빈도	(%)
연령	30대	82 (39.6)	154 (46.2)		236 (43.7)	
	40대	104 (50.2)	131 (39.3)		235 (43.5)	
	50대	21 (10.1)	48 (14.4)		69 (12.8)	
결혼상태	미혼	34 (16.4)	73 (21.9)		107 (19.8)	
	기혼	168 (81.2)	249 (74.8)		417 (77.2)	
	기타(사별 및 이혼)	5 (2.4)	11 (3.3)		16 (3.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50 (24.2)	46 (13.8)		96 (17.8)	
	2년제 대학교 졸업	48 (23.2)	41 (12.3)		89 (16.5)	
	4년제 대학교 졸업	88 (42.5)	177 (53.2)		265 (49.1)	
	대학원 졸업	21 (10.2)	69 (20.7)		90 (16.7)	
직업	전업주부	112 (54.1)	121 (36.3)		233 (43.1)	
	전문기술직	20 (9.7)	72 (21.6)		92 (17.0)	
	사무직	40 (19.3)	96 (28.8)		136 (25.2)	
	판매, 서비스직	22 (10.6)	29 (8.7)		51 (9.4)	
	경영관리직	4 (1.9)	5 (1.5)		9 (1.7)	
	기타	9 (4.3)	10 (3.0)		19 (3.6)	
월평균 총소득	200만원 미만	17 (8.2)	42 (12.6)		59 (10.9)	
	200-400만원 미만	66 (31.9)	113 (33.9)		179 (33.1)	
	400-600만원 미만	75 (36.2)	75 (22.5)		150 (27.8)	
	600-800만원 미만	28 (13.5)	39 (11.7)		67 (12.4)	
	800-1000만원 미만	9 (4.3)	28 (8.4)		37 (6.9)	
	1000만원 이상	12 (5.8)	36 (10.8)		48 (8.9)	

전체 조사대상자 중 유방암생존자는 207명으로 이들의 임상학적 특성은 <표 5>와 같다. 먼저, 수술한 년도를 살펴보면, 2013년이 92명(48.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2012년 46명(24.1%), 2014년 25명(13.1%), 2011년 22명(11.5%), 2010년 11명(5.8%), 2009년 이전은 11명(5.8%) 순으로 응답하여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수술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유방암생존자로 나타났다.

다. 수술 시 병기는 2기가 92명(44.4%)으로 가장 많았고, 1기 54명(26.1%), 3기 49명(23.7%), 0기(상피내암) 9명(4.3%) 그리고 4기 3명(1.4%)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35명(16.9%)은 림프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유방암 수술방법으로는 유방을 보존하는 부분절제수술이 119명(57.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전절제 수술이 50명(24.2%), 전절제 및 복원수술 38명(18.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방암을 진단받더라도 반수 이상의 환자가 자신의 유방을 보존한다는 통계자료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한국유방암학회, 2014).

<표 5> 유방암생존자의 임상학적 특성

(N=207)

구 분		빈도(명)	비율(백분율)
수술한 년도	2014	25	13.1
	2013	92	48.2
	2012	46	24.1
	2011	22	11.5
	2010	11	5.8
	2009년 이전	11	5.8
	병기	0기(상피내암)	9
1기		54	26.1
2기		92	44.4
3기		49	23.7
4기		3	1.4
림프전이	림프 전이 있음	35	16.9
	림프 전이 없음	172	83.1
수술방법	부분절제 수술	119	57.5
	전절제 수술	50	24.2
	전절제 및 복원수술	38	18.4
수술 전·후 치료방법	항암주사	156	75.4
	방사선치료	141	68.1
	표적치료(허셉틴)	35	16.9
	호르몬 약물 주사(졸라텍스)	42	20.3
	호르몬 약제 복용(타목시펜 등)	130	62.8

수술 전 또는 수술 후 치료방법으로는 항암주사가 156명(75.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방사선치료 141명(68.1%), 호르몬 억제 복용(타목시펜 등) 130명(62.8%), 호르몬 약물 주사(졸라텍스) 42명(20.3%), 그리고 표적치료(허셉틴) 35명(16.9%) 순으로 응답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두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과 의복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간의 신뢰도를 측정하여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을 살펴보았으며, 요인별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의복추구혜택과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의 차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 집단 간 그리고 유방암생존자 집단내의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의복추구혜택,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차이 검증인 t-test, 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이용해 사후 검증하였다.

다섯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의복추구혜택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의복추구혜택과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의 차원

본 연구에서 의복추구혜택과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 설문문항에 대하여 변인별로 Kaiser 정규화가 있는 최대우도 방법을 선정하여 사각회전 방식의 프로맥스(Promax) 방법을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과 각 공통요인간의 밀접성의 정도와 각 변인이 어느 공통요인에 포함되는지를 보여주는 요인부하량을 찾는 방법은 회전방식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즉, 공통인자의 회전방식에 따라 각 변인과 각 공통요인간의 밀접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요인부하량이 다르게 나타난다. 요인들 간의 관계가 상호 독립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직각회전방식을 이용하며 베리맥스(Varimax)방식을 보통 사용하는데, 대부분의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요인들 간에 독립적인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사각회전방식이 이용된다(최현철,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통요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하여 공통요인을 특정 각도로 회전하는 사각회전 방식을 통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은 .4이상으로 선정하여,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4를 넘지 않는 문항을 제거하면서 반복적으로 요인분석을 진행하면서 요인을 추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은 .4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고 .5를 넘으면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요인부하량을 .4이상으로 정한 이유는 표본의 수와 변수의 수가 증가할수록 요인부하량 고려수준은 낮추어야 한다는 고려사항을 참고했기 때문이다(성태제, 시기자, 2006). 표본의 크기가 350이상일 때 요인부하량은 .3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는데, 본 연구에서 유효 표본의 크기는 540이므로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을 .4로 설정하여 연구하는 것은 연구의 타당도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1) 의복추구혜택의 요인분석

의복추구혜택 요인의 차원을 확인하기 위한 요인분석 결과 총 6개 요인의 23개 문항이 추출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적재치가 낮은 5개 문항이 삭제되었다. 삭제된 문항은 “나를 젊어보이게 하는 의복을 선호한다”, “많은 사람들이 입는 스타일과는 다른, 독특한 스타일을 선호한다”, 그리고 “가끔 평소와 다른 스타일의 옷차림이나 브랜드를 시도해보기도 한다”, “활발하게 보이는 의복을 선택한다”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지만, 입어서 편하지 않기 때문에 입지 않는 옷이 있다”등이다.

요인 1은 의복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선호하는 등 자기이미지 표현에 관한 문항들과 의복을 통해 사회적 인정을 추구하는 문항들이 같은 요인으로 추출되어 ‘자기표현·사회성 추구’로 명명하였으며, 고유값은 6.26, 설명분산은 27.22, 신뢰도는 .86으로 나타났다.

요인 2는 의복의 기능성을 중요시하고 착용 시 편안함을 추구하는 기능성 추구혜택 문항들과 건강하게 보이는 의복을 선호하는 성향을 나타내는 건강성 추구 문항이 함께 묶여 ‘기능건강성 추구’로 명명하였으며, 고유값은 1.57, 설명분산은 6.84, 신뢰도는 .68로 나타났다.

요인 3은 의복을 선택하고 구매할 때, 자신의 보상심리를 충족하기 위해 의복을 사용하는 성향과 브랜드 선호성향이 있는 문항들이 함께 구성되어 ‘보상심리 추구’라고 명명하였으며, 고유값은 1.15, 설명분산은 5.01, 신뢰도는 .78로 나타났다.

요인 4는 의복으로 여성성을 표현하는 것을 중시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여성성 추구’로 이름 하였으며, 고유값은 1.14, 설명분산은 4.96, 신뢰도는 .82로 나타났다.

<표 6> 의복추구혜택의 요인분석

(N=540)

요인 1. 자기표현·사회성	요인부하량
나는 내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스타일의 의복을 선호한다.	.847
디자인, 칼라가 나에게 잘 어울리는지를 고려하는 편이다.	.775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감이 생긴다.	.601
새로운 옷을 입으면 기분 전환이 된다.	.601
옷을 잘 입으면 남 앞에서 자신만만하고 당당해진다.	.567
직장이나 사회활동에 걸맞은 의복을 착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551
나는 좀 더 이상적인 체형으로 보일 수 있도록 옷 입는데 신경을 쓴다.	.483
의복으로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다.	.482
설명분산(%)=27.22 누적분산(%)=27.22 고유값=6.26 Cronbach α= .86	
요인 2. 기능건강성	
땀을 잘 흡수하고 내 몸을 쾌적하게 해 주는 의류를 선호한다.	.757
나는 옷을 선택할 때, 경량성(가벼운지)을 중요하게 여긴다.	.641
무엇보다 착용감이 좋은 편안한 옷이 좋다.	.569
추운 날씨에는 멋있게 입는 것보다, 보온성 있는 의복을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435
건강하게 보이도록 옷을 입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400
설명분산(%)=6.844 누적분산(%)=34.061 고유값=1.574 Cronbach α= .68	
요인 3. 보상심리	
좋은 의복을 선택하면서 '나는 이 정도는 받을 만하다' 고 생각하곤 한다.	.857
'나는 소중한니까' 라고 생각을 하며 쇼핑을 하곤 한다.	.752
나를 위한 선물로 의복을 구매하기도 한다.	.557
나는 잘 알려진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414
설명분산(%)=5.008 누적분산(%)=39.069 고유값=1.152 Cronbach α= .78	
요인 4. 여성성	
옷을 선택할 때, 더욱 여성스럽게 보이게 하는지 고려한다.	.850
나는 여성스러움이 표현될 수 있는 의복을 선호하는 편이다.	.825
설명분산(%)=4.955 누적분산(%)=44.024 고유값=1.14 Cronbach α= .82	
요인 5. 유행성	
최신 유행에 맞추어 옷을 입는 것은 좋다.	.827
옷을 살 때, 약간 불편하더라도 현재 유행하는 옷을 선택한다.	.523
매장에서 최근 유행경향을 알아보며 둘러보는 것을 좋아한다.	.411
설명분산(%)=3.903 누적분산(%)=17.928 고유값=0.898 Cronbach α= .69	
요인 6. 체형보완	
나는 옷을 입을 때, 신체적 결점을 감추려고 노력한다.	.942
신체적 결함을 숨길 수 있는 옷을 선택하는 편이다.	.603
설명분산(%)=2.514 누적분산(%)=50.442 고유값=0.578 Cronbach α= .73	

요인 5는 최신 유행정보를 습득하며, 유행하는 의복을 선호하는 문항들이 함께 추출되어 ‘유행성 추구’로 명명하였으며, 고유값은 .90, 설명분산은 3.90, 신뢰도는 .69로 나타났다.

요인 6은 신체의 단점을 감추고 체형의 장점을 돋보이게 하는 성향을 보여 ‘체형보완 추구’로 명명하였으며, 고유값은 .58, 설명분산은 2.51, 신뢰도는 .73으로 나타났다.

의복추구혜택 23문항에 대한 총설명분산도 50.44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신뢰도도 .89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체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KMO와 Bartlett 검정을 실시한 결과 KMO값은 .888로 나타났고, Bartlett 결과도 유의하게 나타나면서 단위행렬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p < .000$).

도출된 요인들을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요인들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자기표현성·사회성, 유행성, 및 체형보완성 요인은 다수의 선행연구들과 동일하게 추출되었다. 특히 자기표현·사회성 추구혜택의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개성지향, 사회지향의 설명력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박은희, 2012; 이미아, 2010)와 유사한 결과로 의복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고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여고생-40대와 20-30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개성표현, 사회지향이 각각 다른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자기표현성과 사회성 추구혜택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즉, 30-50대 성인여성은 의복을 통한 자기표현 욕구는 개성을 표현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인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스포츠의류나 건강기능성 의류상품을 중심으로 한 연구(조선명, 고애란, 2008; 황진숙, 2004)에서 편안함·실용성 또는 편안함·기능성으로 추출된 기능건강성 요인이 추출 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수술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외출복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편안하고 실용적인 의복을 중요

시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의복착용상황과 소비자특성이 상호작용하여 의복추구혜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홍희숙, 고애란, 1996).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보상심리 추구혜택이 도출되었는데, 이는 의복을 통해 심리적 위안을 받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의복을 구매하고 착용하는 보상심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존의 연구에서는 심미성이나 심리적 혜택에 포함되어 나타나던 여성성 추구혜택 문항이 본 연구에서는 여성성 추구혜택 요인을 구분되어 도출되었다. 이는 조사대상자에 유방암 수술을 받은 여성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의복을 통해 여성스러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표현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 척도의 차원을 밝히기 위해 요인분석 결과 총 4개 요인 19문항이 추출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적재치가 낮은 1 문항이 삭제되었다. 삭제된 문항은 탐색조사를 통해 추출된 “나이보다 이른 폐경으로 인해 실망감이 든다.” 문항이었는데, 초점집단면접 대상자의 평균연령 38세로 여성성 상실에 대한 실망감이 조사되었으나 본조사 대상자는 30-50대로 연령별로 다른 응답을 하게 되어 적재치가 낮아 삭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요인 1은 수술로 인한 신체의 흉터나 손상으로 인한 불완전성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신체불완전성’로 명명하였다. 고유값은 5.75, 설명분산은 28.73, 신뢰도는 .86으로 나타났다. Hopwood 등(2001)의 선행연구에서 여성성 상실로 구분된 문항들이 본 연구에서는 신체불완전성 요인들과 함께 구성되었다.

<표 7>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의 요인분석

(N=207)

요인 1. 신체불완전성	요인부하량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가슴의 흉터가 보이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	0.80
공중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을 때 편안하다.(R)	0.73
수술로 생긴 흉터 때문에 실망감이 든다.	0.62
나는 병이나 치료의 결과로 여성성이 상실되었다고 느낀다.	0.54
병이나 치료로 인해 신체적 매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0.54
다른 사람들이 내 가슴을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고 볼 것 같다.	0.40
설명분산(%)=28.73 누적분산(%)=28.73 고유값=5.75 Cronbach α= .86	
요인 2. 신체과민성	
나는 샤워할 때 벗은 몸을 보는 것을 힘들어 한다.	0.96
나는 가슴수술 부위를 만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0.65
사람들이 나를 쳐다본다고 느낀다.	0.40
나는 내 안에 마치 시한폭탄이 있다고 느낀다.	0.32
설명분산(%)=5.42 누적분산(%)=34.15 고유값=1.08 Cronbach α= .67	
요인 3. 신체제한성	
나는 팔이 아프거나 저리다.	0.65
나는 수술 전과 동일하게 활동할 수 있다.(R)	0.62
내 팔에 대한 느낌이 정상이다.(R)	0.52
나는 과거보다 쉽게 피곤해져서 일상생활에 방해가 된다.	0.50
치료로 인해 나의 몸이 완전하지 않다고 느낀다.	0.44
나는 내 몸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0.41
설명분산(%)=5.91 누적분산(%)=40.06 고유값=1.18 Cronbach α=.73	
요인 4. 질병염려성	
나는 유방암에 대해 생각한다.	0.76
나는 내 몸에 대해 걱정한다.	0.74
나는 재발 전이에 대해 염려한다.	0.70
설명분산(%)=3.42 누적분산(%)=43.48 고유값=0.68 Cronbach α=.76	

(R): 역코딩 문항

요인 2는 수술 후 신체 변화에 대한 염려로 상처 부위를 보거나 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이 타인의 시선에 대해 의식하고 있다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신체과민성'이라고 명명하였다. 고유값은 1.08, 설명분산은 5.42, 신뢰도는 .67로 나타났다.

요인 3은 수술 후 팔 움직임 제약과 신체 피로 등으로 인한 과상생활의 제한에 관한 문항들로 '신체제약성'이라고 명명하였다. Baxter 등(2006)의 선행 연구에서는 팔 염려와 활동제약의 두 개의 요인이 본 조사에서는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고유값은 1.18, 설명분산은 5.91, 신뢰도는 .73으로 나타났다.

요인 4는 재발 전이 및 유방암에 대해 염려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질병염려성'으로 명명하였다. 고유값은 .68, 설명분산은 3.42, 신뢰도는 .76으로 나타났다.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 척도 19문항에 대한 총 설명분산은 43.48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KMO와 Bartlett 검정을 실시한 결과 KMO값은 .869로 나타났고, Bartlett 결과도 유의하게 나타나면서 단위행렬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다($p < .000$).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88로 나타나 연구를 위한 신뢰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과 의복추구혜택

1)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집단 간 동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에 대한 변인을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전체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에 대한 동질성 검사 결과 두 집단의 평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은 동일한 모집단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Levene의 등분산검증 결과, F값은 .882이고 유의확률 .348($p>.05$)로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MBSRQ의 차이 검증을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 <표 9>과 같다.

먼저 감정적 차원(affective aspect)인 ‘평가(evaluation)’ 하위척도의 차이 검증 결과, 외모평가, 건강평가, 그리고 전체평가에서 $p<.05$, $p<.01$ 수준에서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방암생존자 집단의 외모평가 평균값($M=3.09$)이 일반여성($M=3.23$)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술로 인한 흉터 및 유방 손실로 가슴불균형,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 및 피부 톤의 변화로 신체이미지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들과(Dahl et al, 2010; Hood, 2010; Landmark & Walh, 2002; Moreira et al. 2011; Price, 2009) 일치하는 결과이다. Sabiston 등(2010)은 유방암생존자가 일반여성보다 외모평가가 오히려 높게 나와 후속연구를 제언했었는데, 본 연구는 Sabiston 등(2010)의 연구를 보완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체력평가는 유방암생존자 집단이 약간 낮은 평균값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건강평가는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유방암생존자 집단의 평균값(M=3.23)이 일반여성의 평균값(M=3.37)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 질병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에 대한 평가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부위별 만족도와 몸무게평가는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MBSRQ의 ‘총평가(evaluation)’는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유방암생존자 집단(M=3.02)이 일반여성(M=3.10)보다 낮게 나타났다. 즉, 수술과 치료로 인해 외모, 체력,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신체이미지에 대한 태도가 낮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표 8>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1(감정적 차원)

(N=540, 유방암생존자=207, 일반여성=333)

변 수	유방암생존자		일반여성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외모평가(AE)	3.47	.660	3.45	.600	-2.330*
체력평가(FE)	3.79	.537	3.48	.645	-1.508
건강평가(HE)	3.87	.556	3.57	.589	-2.406*
신체부위별만족도(BS)	3.70	.644	3.45	.645	.363
몸무게평가(WT)	2.98	1.008	2.84	.991	-.509
총 평가(Evaluation)	3.71	.437	3.49	.469	-2.895**

** $p<.01$, * $p<.05$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인지·행동적 차원인 ‘관심(orientation)’ 하위척도의 차이 검증 결과, 체력관심, 건강관심, 질병관심, 그리고 전체관심에서 $p<.001$ 수준에서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모관심은 집단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는 외모를 중요시 여기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외모관심은 수술로 인해 큰

영향을 받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체력관심 평균값(M=3.79 vs M=3.48), 건강관심 평균값(M=3.87 vs M=3.57), 그리고 질병관심 평균값(M=3.70 vs M=3.45)은 모두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방암생존자들은 수술과 치료로 인해 무엇보다 건강을 중요하게 여겨 체력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길 원하며,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검색하고 받아들이고, 질병에 대해 예민하고 관심이 많아 이에 관련된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체중관심은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유방암생존자 집단의 평균값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MBSRQ의 ‘전체관심(orientation)’ 차이검증에서도 유방암생존자(M=3.71)는 일반여성(M=3.49)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유방암생존자들은 신체이미지 전반에 인지가 높고 능동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9>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2(인지·행동적 차원)

(N=540, 유방암생존자=207, 일반여성=333)

변 수	유방암생존자		일반여성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외모관심(AO)	3.47	.660	3.45	.600	.413
체력관심(FO)	3.79	.537	3.48	.645	5.812***
건강관심(HO)	3.87	.556	3.57	.589	5.935***
질병관심(IO)	3.70	.644	3.45	.645	4.351***
체중관심(OP)	2.98	1.008	2.84	.991	1.538
총 관심(Orientation)	3.71	.437	3.49	.469	5.476***

*** $p<.001$

2)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자아존중감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집단 간 동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변인을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전체 자아존중감에 대한 동질성 검사 결과, 두 집단의 평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은 동일한 모집단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Levene의 등분산검증 결과, F값은 3.008이고 유의확률 .083($p>.05$)이므로 두 집단의 분산이 동질하다고 할 수 있다.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차이검증을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는데, 유방암생존자 집단($M=3.38$)은 일반여성($M=3.56$) 보다 자아존중감 평균이 낮아 $p<.01$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표 10>.

<표 10>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자아존중감

(N=540, 유방암생존자=207, 일반여성=333)

변 수	유방암생존자		일반여성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아존중감	3.38	.611	3.56	.568	-3.411**

** $p<.01$

이러한 결과는 유방암 진단과 수술을 자신의 삶에 대한 실패로 인지하며 존재의 정체성마저 흔들려 자신에 대한 지지와 정서가 낮아져 수술 후 환자의 25% 정도가 우울을 겪고 있다고 보고된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이윤수, 2007; 임인숙, 2006; 태영숙 등, 2013). 또한 수술과 치료 과정이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아존중감을 낮게 한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Dahl et al, 2010; White, 2000b).

3)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의복추구혜택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 집단 간 동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의복추구혜택을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전체 의복추구혜택에 대한 동질성 검사 결과 두 집단의 평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은 동일한 모집단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Levene의 등분산검증 결과, F값은 .074이고 유의확률 .785($p>.05$)이므로 두 집단의 분산이 동질하다고 할 수 있다.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의복추구혜택의 차이검증을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집단별 의복추구혜택에 대한 하위요인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기능건강성과 전체 의복추구혜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확인하였다($p<.05$).

<표 11>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의복추구혜택

(N=540, 유방암생존자=207, 일반여성=333)

변 수	유방암생존자		일반여성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기표현·사회성	4.08	.537	4.06	.532	.417
기능건강성	3.73	.527	3.61	.504	2.747**
보상심리	3.50	.739	3.38	.737	1.832
여성성	3.40	.916	3.39	.820	.124
유행성	2.99	.805	2.89	.774	1.507
체형보완	3.99	.847	3.90	.782	1.125
전체의복추구	3.71	.442	3.63	.423	2.112*

** $p<.01$, * $p<.0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능건강성 추구혜택은 유방암생존자의 평균이 (M=3.73) 일반여성(M=3.61)보다 높아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즉, 유방암생존자들은 편안한 착용감과 기능적인 소재, 그리고 건강함을 추구하는 의복을 선호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방암 수술시 전이여부 검사를 위한 겨드랑이 절개로 인해 수술 후 팔의 활동성이 제약되어 착탈이 용이하고 편안한 의복을 선호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 중 하나인 상체발열증상시 체온조절을 도와줄 수 있는 흡습속건이나 보온성 등의 의복의 기능성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방암생존자 집단의 MBSRQ의 건강관심이 높게 나타난 것에도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의 일환으로 의복의 실용적, 기능적 측면을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보온성이 뛰어난 의복으로 신체를 보호하고, 가볍고 흡습속건 기능이 있는 의류로 체온조절을 돕고, 건강하고 활발하게 보이는 의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상심리 추구혜택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유방암생존자(M=3.50)가 일반여성(M=3.38)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 요인은 탐색조사를 통해 추출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신체에 대한 태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자아존중감이나 공허함을 보상해 주려는 동기에 의해 보상소비행동을 하게 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제품을 소유함으로써 실추된 자기개념을 증진시키려고 한다는 선행연구(송인숙, 1993; Mason, 1984; Wicklund & Gollwizer, 1982)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즉, 수술과 치료과정으로 지친 심신의 위로와 만족을 주기 위해 다소 비싼 의복을 선택하기도 하고, 나는 소중한니까 이 정도는 입을만하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위한 선물로 의복을 구매하기도 하는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기표현·사회성, 여성성, 유행성, 체형보완 추구혜택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추구혜택들은 많은 선행연구(남미우, 김광경, 2003; 박

은희, 2012; 이미아, 2010; 조선명, 고애란, 2001; 추태귀, 2002)에서도 나타났듯이 의복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추구혜택으로 수술여부에 따라 자기를 표현하고, 사회적 인정을 받으며, 유행을 추구하고, 이상적인 체형으로 보이게 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의복추구혜택을 살펴보면, 유방암생존자(M=3.71) 집단이 일반집단(M=3.63) 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이러한 결과는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기능성과 건강성을 추구하고, 의복을 통해 심리적 보상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체형을 보완하고자 하는 욕구의 수준이 일반 여성들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4)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의복추구혜택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연령에 따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그리고 의복추구혜택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ANOVA)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집단과 연령에 따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의복추구혜택에서 기능건강성 하위요인에 있어서 연령별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2.>.

<표 12>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연령에 따른 의복추구혜택

기능건강성	30대 (N=236)		40대 (N=235)		50대 (N=69)		F
	평균 (표준편차)	부집단	평균 (표준편차)	부집단	평균 (표준편차)	부집단	
유방암생존자 (N=207)	3.57 (.514)	(A)	3.86 (.489)	(A,B)	3.78 (.610)	(B)	7.339**
일반여성 (N=333)	3.54 (.513)	(A)	3.68 (.502)	(A)	3.68 (.459)	(A)	3.088*
전체 (N=540)	3.55 (.512)	(A)	3.76 (.504)	(B)	3.71 (.507)	(B)	10.039***

*** $p < .001$, ** $p < .01$, * $p < .05$

부집단은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유의수준 5% 이내에서 구분됨.

구체적으로 유방암생존자 집단은 30대 (M=3.57), 40대(M=3.86), 50대 (M=3.78)이며, F값은 7.339($p=.001$)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기능건강성의 추구혜택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Duncan 사후검정 분석결과, 30대와 50대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여성 집단은 30대 (M=3.54), 40대와 50대는 (M=3.68)이며, F값은 3.088($p=.047$)로 나타나, 30대보다 40-50대가 기능건강성의 추구혜택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Duncan 사후검정 분석결과는 세 연령층이 모두 동일

한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30대(M=3.55), 40대(M=3.76), 50대(M=3.71)로 확인되었고, F값은 10.039(p=.000)로 연령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Duncan 사후검정 분석결과, 30대와 40-50대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노년층 소비자들은 신체적 사회적 변화로 인해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능성 소재에 대한 신뢰와 기능성 소재 브랜드를 추구한다는 홍경희, 최인려(2009)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소비자는 연령별 모두 일반여성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는데, 특히 40대가 가장 기능성, 건강성을 많이 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40대 여성들이 수술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인 큰 변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 의복의 기능적인 특성과 건강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많이 강화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3. 유방암생존자의 수술방법에 따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의복추구혜택과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

유방암생존자 집단 내에서 수술방법에 따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의복추구혜택, 그리고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BIABC)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ANOVA)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1) 수술방법에 따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유방암생존자의 수술방법에 따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을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수술방법에 따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집단별 각 하위척도의 평균값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분절제집단과 전절제 집단은 유사한 점수 분포를 보이는 반면, 전절제·복원집단의 점수가 약간 높게 나타나는 흥미로운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즉, 전절제·복원수술을 한 집단의 외모평가, 외모관심, 체력평가, 체력관심, 건강평가, 건강관심, 질병관심의 점수가 세 집단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절제·복원수술을 받은 사람이 전절제 수술만 받은 사람보다 높은 신체이미지를 갖는다는 선행연구(Engel et al., 2004; Moreira & Canavarro, 2010)와 전절제 수술이 부분절제 수술보다 신체이미지 손상이 더 크다는 선행연구(Dalton et al, 2009; Fobair et al., 2006)를 지지하는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13> 수술방법에 따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변인	부분절제집단 (N=119)		전절제집단 (N=50)		전절제·복원집단 (N=38)		F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외모평가(AE)	3.09	.660	3.07	.628	3.16	.671	.212
체력평가(FE)	2.82	.738	2.80	.669	2.97	.788	.644
건강평가(HE)	3.23	.686	3.24	.519	3.26	.518	.037
신체부위별만족도(BS)	2.71	.675	2.73	.644	2.71	.678	.007
몸무게평가(WT)	3.31	.825	3.03	.757	3.09	.743	2.352
외모관심(AO)	3.45	.626	3.46	.822	3.61	.529	.843
체력관심(FO)	3.77	.510	3.71	.569	3.93	.436	1.861
건강관심(HO)	3.83	.548	3.85	.669	3.99	.412	1.082
질병관심(IO)	3.67	.664	3.67	.605	3.80	.605	.587
체중관심(OP)	3.01	.927	2.95	1.082	2.92	1.128	.148
자아존중감	3.43	.581	3.32	.665	3.39	.635	.534

한편 복원수술집단의 점수가 전체적으로 높은 것은, 복원수술로 인해 신체 이미지가 향상되었다고 설명할 수도 있으며, 수술 후 1년이 지나도 복원수술 유무와 상관없이 신체이미지의 손상을 여전히 느낀다는 선행연구(Harcourt & Rumsey, 2006)를 참고해 보았을 때, 원래 신체이미지가 높았던 여성들이 부득이 전절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복원수술을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신체이미지를 보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자아존중감을 수술집단별 살펴보면, 부분절제 집단(M=3.43), 전절제 및 복원수술 집단(M=3.39), 그리고 전절제 수술 집단(M=3.32)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방의 전체를 절제하는 전절제 수술이 부분절제 수술보다 신체이미지의 손상이 더 크고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게 된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Al-Ghazal et al., 2000; Fobair et al, 2006).

2) 수술방법에 따른 의복추구혜택

유방암생존자의 수술방법에 따른 의복추구혜택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수술방법에 따른 의복추구혜택

변인	부분절제집단 (N=119)		전절제집단 (N=50)		전절제·복원집단 (N=38)		F
	평균 (표준편차)	부집단	평균 (표준편차)	부집단	평균 (표준편차)	부집단	
자기표현·사회성	4.03 (.552)	(A)	4.04 (.567)	(A)	4.32 (.387)	(B)	4.035*
기능건강성	3.75 (.524)		3.60 (.527)		3.81 (.546)		1.733
보상심리	3.51 (.734)	(A, B)	3.26 (.760)	(A)	3.71 (.672)	(B)	3.972*
여성성	3.45 (.943)	(A, B)	3.10 (.889)	(A)	3.59 (.802)	(B)	3.328*
유행성	2.91 (.755)		2.97 (.803)		3.21 (.876)		1.792
체형보완	3.96 (.897)		4.07 (.837)		3.91 (.900)		.342
전체 의복추구혜택	3.69 (.451)	(A,B)	3.62 (.428)	(A)	3.82 (.395)	(B)	3.053*

* $p < .05$

부집단은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유의수준 5% 이내에서 구분됨.

수술방법에 따른 자기표현·사회성, 보상심리, 여성성, 그리고 전체 의복추구혜택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수술방법에 따른 자기표현·사회성 추구혜택을 살펴보면, 전절제·복원집단 ($M=4.32$), 전절제집단 ($M=4.04$), 부분절제집단 ($M=4.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분산분석결과 F값은 4.035($p=.019$)로 나타나 수술방법에 따른 자기표

현·사회성 추구혜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의 사후검정 분석결과에서도 전절제·복원집단이 부분절제집단과 전절제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전절제·복원수술을 한 여성들이 자기표현과 사회적 인정을 더 추구한다는 해석보다는, 자기 이미지를 표현하고 의복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성향을 가진 여성들이 부득이 유방암 진단으로 전절제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복원수술을 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MBSRQ에서도 전절제·복원집단이 전절제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면에서도 같은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수술방법에 따른 보상심리와 여성성 추구혜택에 대한 각 집단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전절제·복원집단, 부분절제집단, 전절제집단의 순으로 점수가 나타났다. 또한 보상심리에서 F 값은 3.972($p=0.020$), 여성성에서 F 값은 3.328($p=0.038$)로 나타나 수술방법에 따라 보상심리추구와 여성성 추구혜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 사후검정 분석결과에서 결과, 전절제 및 복원수술을 한 집단은 전절제 수술 집단과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절제·복원을 한 여성들은 전절제 집단보다 자신에 대한 투자와 여성성을 더 추구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능건강성, 유행성, 체형보완 추구혜택은 수술방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수술방법에 따른 전체 의복추구혜택의 각 집단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전절제·복원집단($M=3.86$), 부분절제집단($M=3.69$), 전절제집단($M=3.6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분산분석결과 F 값은 3.053($p=0.05$)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 사후검정 분석결과에서 결과, 전절제·복원수술을 한 집단은 전절제 수술 집단과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절제·복원집단

은 전절제 수술집단보다 전체적으로 의복을 통해 추구하는 혜택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자기표현·사회성, 보상심리, 여성성을 더 높이 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수술방법에 따른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

유방암생존자의 수술방법에 따른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BIABC)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수술방법에 따른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BIABC)

변인	부분절제집단 (N=119)		전절제집단 (N=50)		전절제·복원집단 (N=38)		F
	평균 (표준편차)	부집단	평균 (표준편차)	부집단	평균 (표준편차)	부집단	
신체불완전성	2.64 (.712)	(A)	3.36 (.553)	(B)	2.99 (.698)	(C)	19.071***
신체과민성	2.72 (.785)		2.80 (.825)		2.67 (.822)		.274
신체제약성	3.42 (.750)		3.56 (.782)		3.41 (.668)		.690
질병염려성	4.34 (.678)		4.52 (.530)		4.43 (.524)		1.456
전체 BIABC	3.17 (.545)	(A)	3.47 (.565)	(B)	3.27 (.559)	(A,B)	5.477**

*** $p < .001$, ** $p < .01$

부집단은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유의수준 5% 이내에서 구분됨.

수술방법에 따라 신체불완전성과 전체 BIABC는 $p < .001$, $p < .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수술방법에 따른 신체불완전성을 살펴보면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전절제 집단(M=3.36), 전절제·복원집단(M=2.99), 부분절제 집단

(M=2.64)의 순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이미지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분산 분석결과 F값은 19.071(p=.000)로 나타나 수술방법에 따라 수술흉터나 신체적 매력에 대한 평가, 여성성 상실에 대하여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Duncan의 사후검정 분석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수술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세 개의 집단으로 나타났다. 즉, 전절제 수술로 인해 가슴의 불균형과 신체적 매력저하 및 여성성 상실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전절제 수술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심리적 손상이 크게 나타난다는 많은 선행연구들(Dalh et al., 2009)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술방법에 따른 전체 BIABC를 살펴보면, 전절제집단(M=3.47), 전절제·복원집단(M=3.27), 부분절제집단(M=3.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분산분석결과 F값은 5.477(p=.005)로 나타났다. Duncan의 사후검정 분석결과에서도 전절제집단은 부분절제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술방법에 따라 신체이미지를 측정한 선행연구(Al-Ghazal et al, 2000; Dahl et al, 2010; Fobair et al, 2006)들과 일치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4.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과 의복추구혜택의 관계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 의복추구혜택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6>과 같다.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의 하위요인과 자아존중감의 내적상관을 분석한 결과 외모평가(AE), 체력평가(FE), 건강평가(HE), 외모관심(AO), 체력관심(FO), 건강관심(HO)과 질병관심(IO), 그리고 신체부위별 만족도(BS), 체중관심(OP), 몸무게평가(WT)인 10개의 요인과 자아존중감은 $p < .01$, $p < .05$ 수준에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의복추구혜택의 자기표현·사회성, 기능건강성, 보상심리, 여성성과 정적상관($p < .01$)을 보였으며, 의복추구혜택의 하위요인 간에도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와 의복추구혜택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볼 때, 외모관심, 체력관심, 건강관심, 그리고 질병관심은 자기표현·사회성, 기능건강성, 보상심리, 여성성, 유행성, 체형보완성과 $p < .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16>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의복추구혜택의 상관관계

	감정적 차원					인지·행동적 차원					자아 존중감	자기표현 사회성	기능 건강성	보상심리	여성성	유행성	체형보완
	AE	FE	HE	BS	WT	AO	FO	HO	IO	OP							
AE	1	.368**	.184**	.448**	-.198**	.389**	.299**	.233**	.195**	.103*	.124**	.174**	.139**	.235**	.205**	.208**	.012
FE		1	.287**	.405**	-.194**	.235**	.454**	.263**	.160**	.044	.130**	.152**	.104*	.194**	.103*	.177**	-.063
HE			1	.188**	-.081	.209**	.392**	.339**	.216**	.127**	.069	.157**	.154**	.144**	.114**	.131**	.050
BS				1	-.404**	.166**	.271**	.228**	.104*	-.179**	.125**	.194**	.079	.215**	.156**	.121**	-.100*
WT					1	-.054	-.127**	-.178**	-.189	.478**	-.036	-.107*	.019	-.120**	-.058	-.070	.201**
AO						1	.346**	.328**	.405**	.263**	.148**	.486**	.246**	.391**	.341**	.406**	.226**
FO							1	.593**	.410**	.215**	.249**	.362**	.294**	.307**	.199**	.260**	.128**
HO								1	.628**	.130**	.183**	.298**	.355**	.249**	.191**	.213**	.200**
IO									1	.079	.116**	.297**	.306**	.282**	.215**	.247**	.139**
OP										1	.145**	.098*	.051	.123**	.055	.161**	.325**
자아존중감											1	.217**	.175**	.122**	.132**	.070	.084
자기표현												1	.396**	.589**	.439**	.456**	.386**
기능건강													1	.285**	.380**	.113**	.328**
보상심리														1	.357**	.529**	.244**
여성성															1	.352**	.222**
유행성																1	.177**
체형보완																	1

** $p < .01$, * $p < .05$

1)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다차원적 신체이미지가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차원적 신체이미지를 독립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7>에서 알 수 있듯이, 다차원 신체이미지는 자아존중감을 6.3%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7.508$, $p<.001$). 하위요인에 대한 β 값을 살펴보면, β 값은 .255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t 값은 6.124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표 17>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의 영향 관계

종속 변인	독립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F	R ²
		B	표준 오차	β			
자아 존중감	(상수)	2.519	.116		21.783	37.508***	.063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220	.036	.255	6.124*		

*** $p<.001$, * $p<.05$

이러한 결과는 신체는 물질적 자아를 이루며, 물질적 자아는 ‘나’를 이루는 구성요소로(James, 2005) 신체이미지는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박지현, 최태산(2008), 정명선(2003), Cash(1994), Lennon 등(1999)과 일치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2) 자아존중감과 의복추구혜택의 관계

자아존중감이 의복추구혜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인으로, 의복추구혜택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8>에서 볼 수 있듯이 자아존중감은 의복추구혜택에서 4.4%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24.962$, $p<.001$). 하위요인에 대한 β 값은 .211로 나타났고, 이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t 값은 4.996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자아존중감은 의복추구혜택에서 4.4%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자아존중감과 의복추구혜택의 영향 관계

종속 변인	독립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F	R ²
		B	표준 오차	β			
의복 추구 혜택	(상수)	2.646	.205		12.880	24.962***	.044
	자아존중감	.317	.063	.211	4.996*		

*** $p<.001$, * $p<.05$

이는 자아존중감에 따라 의복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한다(이선재, 1991; Humphrey et al., 1971).

3) 다차원 신체이미지와 의복추구혜택의 관계

다차원적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혜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차원적 신체이미지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의복추구혜택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9>에서 알 수 있듯이, 다차원 신체이미지는 의복추구혜택에서 26.1%의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191.631$, $p<.001$). 하위요인에 대한 β 값을 살펴보면, β 값은 .512로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t 값은 13.843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다차원적 신체이미지는 의복추구혜택을 26.1%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와 의복추구혜택의 영향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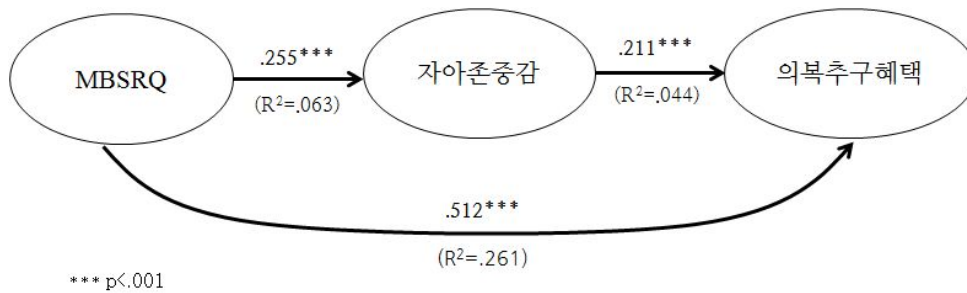
종속 변인	독립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F	R ²
		B	표준 오차	β			
의복 추구 혜택	(상수)	1.538	.155		9.945	191.632***	.261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665	.048	.512	13.843*		

*** $p<.001$, * $p<.05$

이러한 결과는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며(Cash et al., 1986, Fisher, 1986, Thompson, 1990), 신체이미지에 따라 의복추구혜택이 달라진다는 선행연구(김광경, 이금실, 정미실, 2001; 조선명, 고애란, 200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이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다차원적 신체이

미지가 의복추구혜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beta = .512$), 다차원적 신체이미지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beta = .255$), 자아존중감도 의복추구혜택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beta = .211$). 이러한 결과는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과 의복추구혜택간의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송경자, 김재숙, 2005; Ford & Drake, 1982; Keeton & Brown, 1990)와 일치하였다.



<그림 1>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의복추구혜택의 관계

4)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의 하위변인과 의복추구혜택 하위변인의 관계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의 하위변인이 의복추구혜택의 하위변인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20>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전체적으로 다차원적 신체이미지는 자기표현·사회성 추구혜택에 28.7%의 설명력이 있었으며, 기능건강성에는 16.1%, 그리고 보상심리에는 19.6%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여성성 추구혜택에는 12.3%의 설명력을, 유행성에는 17.6%, 체형보완에서는 15.7%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0> 의복추구혜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요인

종속 변인	독립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F	R ²
		B	표준 오차	β			
자기표현 사회성	외모평가(AE)	-.116	.053	-.098	-2.199 *	22.700***	.287
	신체부위별 만족도(BS)	.103	.040	.117	2.545 **		
	외모관심(AO)	.529	.054	.431	9.804 ***		
	체력관심(FO)	.192	.044	.225	4.406 ***		
기능 건강성	몸무게평가(WT)	.108	.033	.162	3.236 **	11.318***	.161
	외모관심(AO)	.143	.057	.121	2.528 *		
	체력관심(FO)	.106	.046	.128	2.321 *		
	건강관심(HO)	.185	.051	.213	3.652 ***		
	질병관심(IO)	.084	.042	.106	1.980 *		
	체중관심(OP)	-.065	.026	-.126	2.531 ***		
보상심리	신체부위별 만족도(BS)	.144	.059	.119	2.435 *	14.116***	.196
	외모관심(AO)	.459	.080	.269	5.769 ***		
	체력관심(FO)	.164	.064	.138	2.550 *		
	질병관심(IO)	.126	.059	.111	2.123 *		
여성성	외모관심(AO)	.546	.096	.277	5.678 ***	8.553***	.123
유행성	외모관심(AO)	.569	.086	.314	6.647 ***	12.476***	.176

*** $p < .001$, ** $p < .01$, * $p < .05$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의 하위변인이 의복추구혜택 하위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표현·사회성 추구혜택에는 외모관심($\beta = .431$)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체력관심($\beta = .225$), 신체부위별 만족도($\beta = .117$), 외모평가($\beta = -.098$) 순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R^2 = .287$). 즉 외모, 체력, 몸매, 피트니스 등에 관심이 많고 신체 부위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의복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고 사회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으며, 외모 평가가 낮은 사람들은 의복

으로 더 좋은 이미지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능건강성 추구혜택에는 건강관심($\beta=.213$)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몸무게평가($\beta=.162$), 체력관심($\beta=.128$), 외모관심($\beta=.121$)과 질병관심($\beta=.106$)순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R^2=.161$). 체중관심은($\beta=-.126$)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건강관심이 높은 소비자들이 편안하고 기능성이 뛰어난 의복을 선호하며 건강하게 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건강, 질병에 관심이 많은 유방암생존자들이 일반여성보다 기능건강성 의복추구혜택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또한 인지·행동적 차원의 외모, 체력, 건강, 질병, 체중관심 하위요인 모두가 기능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보상심리 추구혜택에는 외모관심($\beta=.269$)이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이며, 체력관심, 신체부위별 만족도, 질병관심($\beta=.138, .119, .111$)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R^2=.196$). 즉, 외모, 체력, 질병관심과 신체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의복을 통해 심리적 보상을 얻으려는 행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성 추구혜택에는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의 하위변인 가운데 외모관심($\beta=.277$)이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R^2=.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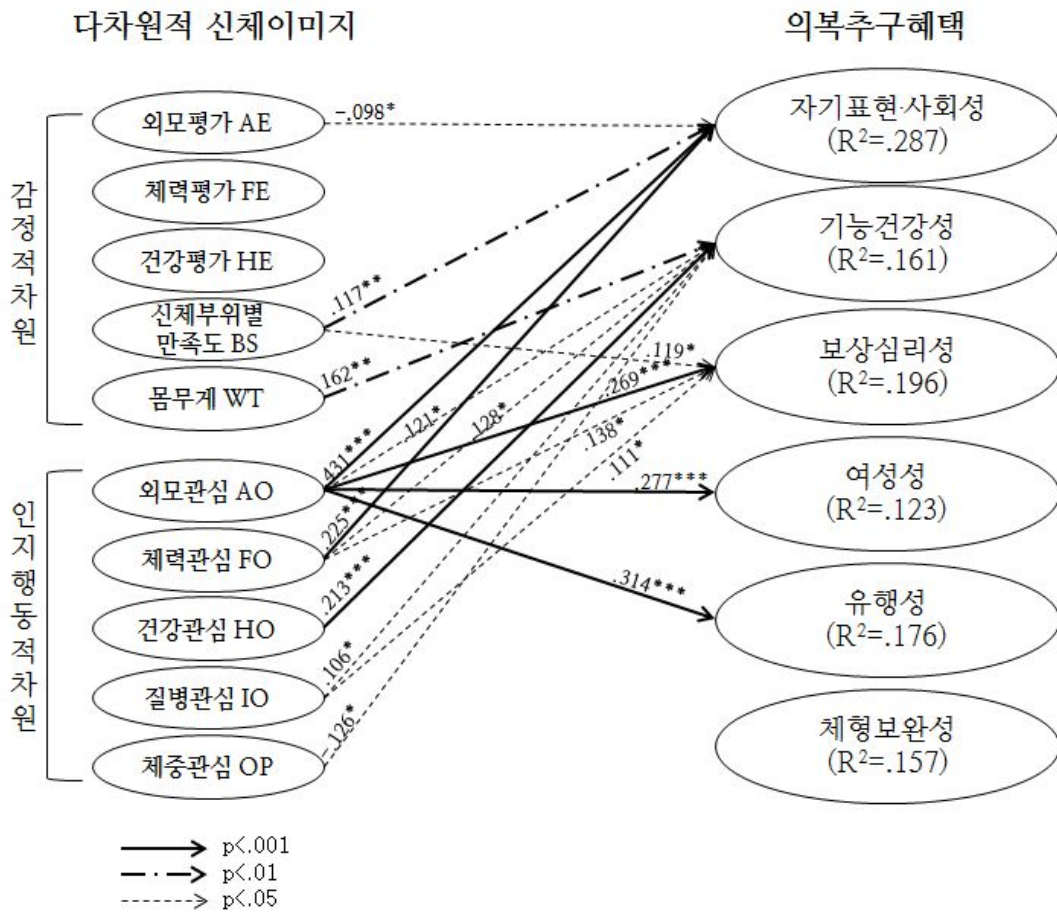
유행성 추구혜택에도 외모관심($\beta=.314$)이 영향을 주었다($R^2=.176$).

체형보완 추구혜택은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의 하위변인에 의해 15.7% ($F=11.070^{***}$)의 설명력이 있는데, 하위요인별로는 정적 또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의 하위변인과 의복추구혜택의 하위변인과의 관계를 도식화 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인지·행동적 차원인 ‘관심’ 척도는 감정적 차원인 ‘평가’ 척도보다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모평가는 자기표현·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었다. 신체부위별 만족도는 자기표현·사회성과 보상심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하주연 등(2005)의 연구에서 신체만족도가 사회승인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하위변인과 의복추구혜택 하위변인의 영향 관계

의복추구혜택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외모관심으로, 자기표현·사회성, 기능건강성, 보상심리성, 여성성, 유행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모관심이 높으면 유행, 의복과시성, 사회승인성, 심미성에 영향을 준다고 밝힌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광경 등, 2001; 이미숙, 송경

자, 2009; 하주연 등, 2005). 체력관심은 자기표현·사회성, 기능건강성, 보상심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신체적 매력, 몸매, 체력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의복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적 승인을 받으며 자신의 몸매를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다는 선행연구(김광경 등, 2001)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MBSRQ 관련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하지 않았던 건강관심, 질병관심 척도들을 사용하여 의복추구혜택과의 관계를 밝혔는데, 건강관심은 기능건강성에, 질병관심은 기능건강성과 보상심리성 추구혜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 질병에 대해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활동의 연장선으로 몸을 건강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흡습속건, 보온성 등이 뛰어난 기능성 의복을 선호하며, 의복구매를 통해 심리적 보상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유방암생존자의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과 의복추구혜택을 일반여성과 비교하여 파악하고, 유방암생존자 집단 내 수술방법에 따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의복추구혜택 및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를 분석하며,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과 의복추구혜택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차원적 신체이미지는 감정적 차원인 ‘평가’ 척도의 외모평가(AE), 체력평가(FE), 건강평가(HE), 신체부위별 만족도(BS)와 몸무게평가(WT)와 인지·행동적 차원인 ‘관심’ 척도의 외모관심(AO), 체력관심(FO), 건강관심(HO), 질병관심(IO)과 체중관심(OP)을 포함한 10개의 차원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30-50대의 성인여성 540명으로 유방암생존자 207명, 일반여성 333명을 조사하였다.

1) 의복추구혜택과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의 차원

첫째, 의복추구혜택 차원을 분석한 결과, 자기표현·사회성, 기능건강성, 보상심리, 여성성, 유행성, 체형보완 추구의 6개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방암생존자의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BIABC)의 차원을 분석한 결과, 신체불완전성, 신체과민성, 신체제약성, 질병염려성 등의 4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신체불완전성은 신체의 흉터나 손상으로 인한 지각과 여성성 상실 등에 관한 것이며, 신체과민성은 상처 부위를 보거나 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인식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신체제약성은 팔 움직임 제약과 신체 피로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에 관한 것이며, 질병염려성은 재발, 전이에 대해 염려에 관한 내용이었다.

2)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과 의복추구혜택

첫째,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다차원적 신체이미지를 살펴보면, 먼저 감정적 차원의 하위요인인 외모평가(AE), 건강평가(HE)와 총 평가(evaluation)에서 유방암생존자가 일반여성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수술과 치료로 인해 외모, 체력,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신체이미지에 대한 태도가 낮아졌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의 인지·행동적 차원의 하위요인인 체력관심(FO), 건강관심(HO), 질병관심(IO)과 총 관심(orientation)은 유방암생존자가 일반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유방암생존자들은 수술 후 체력, 건강, 질병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자아존중감을 비교한 결과 유방암생존자가 일반여성보다 더 낮게 나타나 수술과 치료 후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의 의복추구혜택을 분석한 결과 기능건강성 추구혜택과 전체 의복추구혜택에서 유방암생존자가 일반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보상심리 추구혜택도 유방암생존자가 약간 높게 나타나 수술 후 여성 소비자들은 기능성과 건강성을 추구하며 의복을 통해 심리적 보상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유방암생존자와 일반여성 집단의 연령별로 의복추구혜택을 비교한 결과 기능건강성 추구혜택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전체적으로 30대보다 40-50대가 기능건강성 추구혜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유방암생존자는 40대, 50대, 30대 순으로 의복의 기능건강성을 추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유방암생존자 수술방법에 따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의복추구혜택과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

첫째, 유방암생존자 집단 내 수술방법에 따라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전절제 수술을 한 집단이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수술방법에 따른 의복추구혜택을 분석한 결과 자기표현·사회성, 보상심리, 여성성, 그리고 전체 의복추구혜택에서 전절제·복원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분절제 집단, 전절제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외모관심이 높고 자기 이미지를 표현하며 의복의 사회적 승인을 중요시 여기는 여성들이 부득이 유방암 진단으로 전절제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복원수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체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좋은 브랜드 의복을 구매함으로써 심리적 보상을 받으려 하며, 여성성도 높게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수술방법에 따른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BIABC)는 부분절제 집단이 전절제 수술 집단보다 전체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불완전성은 전절제 집단이 가장 낮으며, 전절제·복원, 부분절제 집단 순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 수술방법에 따라 수술흉터나 신체적 매력에 대한 평가, 여성성 상실에 대하여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과 의복추구혜택의 관계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의복추구혜택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차원적 신체이미지는 자아존중감에($R^2 = .063$), 자아존중감은 의복추구혜택에($R^2 = .044$), 또한 다차원적 신체이미지는 의복추구혜

택에($R^2 = .261$)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의 하위요인이 의복추구혜택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표현·사회성 추구혜택에는 외모평가(AE), 신체부위별 만족도(BS), 외모관심(AO), 그리고 체력관심(FO)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기능건강성 추구혜택에는 체력평가(FE), 신체부위별 만족도(BS), 외모관심(AO), 체력관심(FO), 그리고 체중관심(OP)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보상심리 추구혜택에는 신체부위별 만족도(BS), 그리고 외모관심(AO), 체력관심(FO), 질병관심(IO)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여성성과 유행성 추구혜택에는 외모관심(AO)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의복추구혜택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외모관심이었으며, 건강관심은 기능건강성에, 질병관심은 기능건강성과 보상심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방암생존자의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이 일반여성보다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학계의 노력과 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둘째, 의복추구혜택에서 유방암생존자는 일반여성보다 기능건강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전체 의복추구혜택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유방암생존자라는 특정 소비자 집단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성 제품 개발과 효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차별적 마케팅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유방암생존자 집단 내 전절제 수술을 받은 여성들의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이 전절제·복원, 부분절제수술 집단보다 낮으며, 유방암수술후 신체이미지(BIABC)에서도 자신의 신체를 불완전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절제 수술을 받은 여성의 토털케어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며, 신체 이미지 증진 프로그램(Cash, 2008),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Macmillan

cancer support, 2013)등의 운영이나 뷰티케어, 패션코디네이션 등 실질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학계와 관련업계의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과 의복추구혜택은 정적 상관 이 있으며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의복의 제품개발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충족시키고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상품기획과 마케팅 전략을 강조하는 패션기업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며, 향후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의 하위척도들의 일부가 적합한 신뢰도를 확보하지 못하였는데, MBSRQ 척도의 적합한 번안과 측정도구의 검증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료수집의 측면에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여 유방암생존자의 개인적이고 민감한 수술에 관련된 설문이 용이하였으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설문을 응답함으로써 화면이 작아 조작적 실수가 있을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후속연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다양한 표본을 사용하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유방암생존자의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의복추구혜택을 일반여성과 비교하여 검증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두 집단 간 그리고 유방암생존자 집단 내에서의 연령별 모집단이 일정하지 않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지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유방암생존자의 수술방법, 심리적 상태, 라이프스타일 등의 다양한 변수를 도입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유방암생존자에 대한 의복추구혜택에 관한 연구로 의의가 있으나 이들의 의복착용실태나 의복행동에 대한 다양한 정성적 연구와 정량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동우. (2012). *The korean version of the body image scale(K-BIS)*.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강소영. (2003). *외모 콤플렉스와 신체상*. 석사학위 논문,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 강혜원, 이금실, 고애란, 정미실, 남미우, 김양진. (2012). *의상사회심리학 (제3판)*, 서울: 교문사.
- 고애란, 이수경(2004). 여고생의 신체발달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자기존중감, 의복태도 형성모델. *대한가정학회지*, 42(11), 189-203.
- 김광경, 이금실, 정미실. (2001) 다차원적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2), 358-365.
- 김미영, 이은영. (1991). 의복평가기준의 이론적 틀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3), 321-334.
- 김선희. (2003). 신체이미지와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연구. *복식*, 53(1), 87-98.
- 김수현, 전은영, 이원희. (2006). 유방암 환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앙간호학회지*, 6(2), 133-142.
- 김순구, 윤학자. (1986).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 남, 녀 고교생을 중심으로 -. *한국의류학회지*, 10(1), 1-8.
- 김순구, 박정순. (1990). 자아존중과 의복행동 간의 상관연구 -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4(4), 305-313.
- 김양진, 강혜원. (1992).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6(2), 197-209.
- 김영란. (2010). 유방암 절제술을 받은 여성의 복합적 신체 이미지와 사회적 지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1), 129-147.
- 김용숙. (2000). 노년기 여성의 의류추구혜택에 따른 시장세분화. *복식*, 50(8),

99-110.

- 김윤선, 태명숙. (2011). 유방암 생존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 *중앙간호학회지*, 11(3), 221-228.
- 김창엽. (2013). *유방암환자에서 한국판 신체이미지 척도의 타당성에 대한 예비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남미우, 김광경. (2003). 여자 대학생의 쇼핑성향에 따른 의복추구혜택, 정보원활용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9), 55-67.
- 노동영. (2009). *유방암*. 서울: 이젠미디어.
- 류은정, 임숙자. (1998). 소비자 가치체계와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6), 749-756.
- 민연기, 김종한, 조성진, 김남렬, 구범환, 황정웅, 배정원. (2001). 35세 이하 젊은 연령에 발생한 유방암의 임상적 특징과 예후. *대한외과학회지*, 60(6), 612-617.
- 박옥련, 이지나. (2009). 유아복 구매시 추구혜택에 따른 유아복 구매행동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8(4), 923-932.
- 박은희. (201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의복추구혜택이 패션제품의 양면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16(1), 137-149.
- 박지현, 최태선. (2008). 청소년의 신체이미지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1(1), 117-129.
- 박찬수. (2006). *마케팅 원리 (제 3판)*. 서울: 법문사.
- 박혜원. (1996). *의류상품의 편익이 상표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서연옥. (2007).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7(4), 352-367.
- 성태제, 시기자. (2006).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송경자. (2009). 지각적 신체이미지, 외모관리행동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류학회지, 33(10), 1611-1621.
- _____, 김재숙. (2005). 신체이미지에 따른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 다중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한국의류학회지*, 29(3/4), 391-402.
- 송인숙. (1993). *소비자의 중독구매성향 및 영향요인*.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신현영, 이인자 (2000). 정신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의상치료 효과(제 1보). *한국의류학회지*, 24(7), 1088-1099.
- 안광호, 황선진, 정찬진. (2005). *패션마케팅 (제 3판)*. 서울: 수학사.
- 유미숙, 이세연. (2010). 한국판 유방암 환자용 신체이미지 척도(K-BIBCQ)의 타당화 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3(1), 65-81.
- 유영미, 이명선. (2013). 유방암 여성의 삶의 질 관련 요인. *중앙간호연구*, 13(3), 121-127.
- 유태순. (201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신체이미지와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9(3), 260-69.
- 윤미라, 송미순. (2013). 유방암 생존자의 질병 극복 경험.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10(1), 41-51.
- 이경미, 최혜선. (2001). 유방암 환자용 브래지어에 대한 착용실태조사. *한국의류학회지*, 25(4), 697-706.
- 이미숙. (2009).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사회적 자아개념과 의복행동간의 관계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3(3), 433-443.
- _____, 송경자. (2009). 태도적 신체이미지, 성형태도에 따른 의복행동. *한국생활과학회지*, 18(2), 441-449.
- 이미아. (2010).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의 소비가치 및 의복추구혜택의 비교연구- 20~30대 직장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4(5), 808-818.
- 이선재. (1991). 한, 미 대학생 및 교포 대학생간의 의복태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2), 173-187.

- 이연정, 박명자. (2013). 중년층 소비자의 의복추구혜택에 따른 아웃도어웨어의 일상복으로의 활용성, *복식문화연구*, 21(5), 765-779.
- 이영주, 이은옥. (2011).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구매행동에 관한 질적 연구: 기능성 인지수준과 추구혜택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9(5), 1088-1101.
- 이윤수. (2008). 유방완전절제술을 받은 여성의 심리사회적 경험: 자조집단 참여자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3), 99-124.
- 이윤정. (2004). 신체통제에 대한 신념이 외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8(7), 974-982.
- 이은영. (1997). *패션마케팅*. 서울: 교문사.
- 이인자, 이경희, 신호정.(2012). *의상심리*. 서울: 교문사.
- 이정원, 황진숙. (2009). 여성 소비자의 추구혜택에 따른 골프웨어 구매행동 연구. *한국의류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05.
- 이진화, 김칠순. (2007). 의복추구혜택에 따른 중-노년기, 여성 세분시장의 구매기준 및 패션정보원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5(5), 39-49.
- 이현경, 이명희(2004), 소비자 가치와 스포츠웨어 추구혜택 및 속성평가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2(6), 1031-1044.
- 임인숙. (2006). 유방암, 손상된 몸과 여성성의 위기감. *한국여성학*, 22(4), 5-46.
- 전경란, 이명희. (2003). 신체만족도와 심리적 특성이 외모향상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6), 643-653.
- 정명선. (2003). 성인 여성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자존심과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 53(3), 165-179.
- 전명희. (1995). *유방암 환자 삶의 과정적 변화에 대한 이해*.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전은영, 최순란, 강희선. (2012). 유방암 생존자의 인조유방 사용경험. *여성건강*

- 강간호학회지, 18(1), 49-61.
- 정경숙, 박금자. (2007). 유방절제술 환자의 신체상, 자아존중감과 건강증진행위의 관계. *중앙간호학회지*, 7(1), 36-46.
- 정미실, 이금실. (2007). 성형태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7), 131-140.
- 제은숙. (2012). 아웃도어 웨어 추구혜택에 따른 의복선택기준과 구매만족도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 저널*, 16(4), 1-12.
- 조선명, 고애란. (200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기 여학생의 연령 집단별 차이 비교 -. *한국의류학회지*, 25(7), 1227-1238.
- _____ (2008). 스포츠 소비 욕구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특성과 스포츠 의류 추구혜택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32(3), 418-430.
- 조윤진. (2011). 남성 소비자의 의복추구혜택이 기능성 소재 의류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웰빙건강의식과 연령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3(6), 900-908.
- 진효정, 임숙자. (1997). 여대생 집단과 유행전문가 집단의 의복 동조성에 관한 연구 - 자아개념변인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5(3), 47-56.
- 채영란. (2005). 유방암절제술을 받은 여성의 지각된 건강상태, 우울 및 삶의 질의 관계. *성인간호학회지*, 17(1), 119-127.
- 최일경, 고애란. (1995). 혜택세분화와 인식도에 의한 진 의류 브랜드 이미지 연구(1) - 진 의류에 대한 추구혜택을 기준으로 한 소비자 세분화 -, *한국의류학회지*, 19(4), 651-662.
- 최정아. (1996). *자의식과 자존감이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최현철. (2007). *사회통계방법론*. 서울:나남.
- 추태귀. (2002). 신체만족도에 따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와 의복추구효용. *한*

국의류산업학회지, 4(4), 376-382.

태영숙, 권수혜, 최정화, 이해란, (2013). 유방암 생존자의 우울예측요인, *중앙간호연구*, 13(3), 113-120.

하주연, 고애란, 정미실, (2005). 여고생의 감각추구성향과 신체이미지에 따른 의복행동 및 헤어스타일 태도. *한국의류학회지*, 29(5), 131-142.

홍경희, 최인려. (2009). 노년층 소비자의 기능성 소재 추구 혜택, 태도 및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7(1), 149-161.

홍금희. (2006). 자아존중감에 대한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비만도 및 신체이미지의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0(2), 348-357.

홍희숙, 고애란. (1996). 상황과 소비자 특성의 추구혜택과 선호브랜드 유형에 대한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0(5), 738-752.

_____. (2009). 웰빙 의류상품 구매의도에 의복 추구혜택이 미치는 영향 -친환경 의류상품 및 건강 기능성 의류상품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3(11), 1839-1852.

_____, 류성민. (2009). 웰빙 라이프스타일 소비자의 탈 물질주의 가치 성향 및 의류 상품 추구혜택. *소비문화연구*, 12(2), 39-66.

황숙연. (2009). 유방암 생존자의 삶의 질과 영향요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3(12), 257-287.

황진숙. (1998). 신체 만족도와 이상적인 신체상의 중요성이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3), 293-302.

_____. (2003). 인터넷 위험지각 집단의 의복추구혜택, 인터넷 쇼핑태도 및 구매의도. *한국의류학회지*, 27(7), 746-757.

_____. (2004). 스포츠웨어 추구혜택 세분시장에 따른 국내 및 해외브랜드에 대한 태도, 쇼핑태도,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5), 690-700.

_____, 김윤희. (2006).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심리적 안녕감.

복식, 56(3), 143-155.

Aaker, D. A. (1991). *Managing Brand Equity*. New York, NY: The Free Press.

Al-Ghazal, S. K., Fallowfield, L., & Blamey, R. W. (1999). Does cosmetic outcome from treatment of primary breast cancer influence psychosocial morbidity? *European Journal of Surgical Oncology*, 25, 571-573.

_____ (2000). Comparison of psychological aspects and patient satisfaction following breast conserving surgery, simple mastectomy and breast reconstruction. *European Journal of Cancer*, 36(15), 1938-1943.

Amiel, P., Dauchy, S., Bodin, J., Cerf, C., Zenascni, F., Pexant, E., et al, (2009). Evaluating beauty care provided by the hospital to women suffering from breast cancer: Qualitative aspects. *Supportive Care in Cancer*, 17(7), 839-845.

Anderson, M. S. & Johnson, J. (1994). Restoration of body image and self-esteem for women after cancer treatment. (5), 345-349.

Aronowitz, R. A. (2007). *Unnatural History: Breast Cancer and American Society*.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Aune, R. & Aune, K. (1994). The influence of culture, gender, and relational status on appearance managemen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5(2), 258-272.

Baumeister, R. F. & Tice, D. M. (1985). Self-esteem and response to success and failure: Subsequent performance and intrins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53, 450-467.

- Baxter, N. N., Goodwin, P. J., Mcleod, R. S., Dion, R., Devins, G., & Bombardier, C. (2006).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body image after breast cancer questionnaire. *Breast Journal*, *12*(3), 221-232.
- Befort, C., Kurpius, Se. E. R., Hull-Blanks, E., Nicpon, M. F., Huser, L., & Sollenberger, S. (2001). Body image, self-esteem and weight related criticism from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2*(5), 407-419.
- Begovic-Juhant, A. & Chmielewski, A. (2012). Impact of body image o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among women with breast cancer. *Journal of Psychosocial Oncology*, *30*, 446-460.
- Bloom, J. R., Stewart, S. L., Chang, S., & Bank, P. J. (2004). Then and now: Quality of life of young breast cancer survivors. *Psycho-Oncology*, *13*, 147-160.
- Brown, T. A., Cash, T. F., & Lewis, R. J. (1989). Body-image disturbances in adolescent female binge-purgers: A brief report of the results of a national survey in the U.S.A.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0*, 605-613
- _____ & Mikulka, P. J. (1990). Attitudinal body-image assessment: Factor analysis of the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1&2), 135-144.
- Carver, C. S., Pozo-Kaderman, C., Price, A., Noriegs, V., Harris, S., Derhagopian, R.P., et al. (1998). Concern about aspects of body image and adjustment to early breast cancer. *Psychosomatic Medicine*, *60*, 168-174.
- Cash, T. F. (1994). Body-image attitudes: Evaluation, investment, and affect. *Perceptual and Motor Skills*, *78*, 1168-1170.

- _____ (2000). The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s user's manual(3rd revision). Available from the author at www.body-images.com.
- _____ (2008). *The Body Image Workbook: An Eight-Step Program for Learning to Like Your Looks*(2nd ed.). Auckland, CA: New Harbinger.
- _____ & Pruzinsky, T. (2002). *Body images: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New York, NY: Guilford Press..
- _____ & Smolak, L. (2011). *Body Image: A handbook of science, practice, and prevention*(2nd ed.). New York, NY: Guilford Press.
- _____, Winstead, B. A., & Janda, L. H. (1985). Your body, yourself: A reader survey. *Psychology Today*, 19(7), 22-26.
- _____ (1986). Body image survey report: The great American shape-up. *Psychology Today*, 20(4), 30-44.
- Cassill, N. & Drake, M. F. (1987), Employment Orientation's Influence on Lifestyle and Evaluative Criteria for Apparel.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6, 23-35.
- Chang, H. J., Hodges, N., & Yurchism, J. (2013). Consumers with disabilities: a qualitative exploration of clothing selection and use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32(1), 34-48.
- Cohen, M. Z., Kahn, D. L., & Steeves, R. H. (1998). Beyond body image: the experience of breast cancer. *Oncology Nursing Forum*, 25(5), 835-41.
- Collins, K. K., Liu, Y., Schootman, M., Aft, R., Yan, Y., Dean, G., & Jeffe,

- D. B. (2011). Effects of breast cancer surgery and surgical side effects on body image over time. *Breast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126*(1), 167-176.
- Compas, B. E. (2002). Psychological adjustment to breast cancer.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1*(3), 111.
- Contant, C., van Wersch, A., Menke-Pluymers, M., Tjong, J., Eggermont, A., & van Geel, A. (2004). Satisfaction and prosthesis related complaints in women with immediate breast reconstruction following prophylactic and oncological mastectomy. *Psychology, Health & Medicine, 9*(1), 71-85.
- Dahl, C., Reinertsen, K., Nesvold, I., Fosså, S., & Dahl, A. (2010). A study of body image in long-term breast cancer survivors. *Cancer, 116*(15), 3549-3557.
- Dalton, E. J., Rasmussen, V. N., Classen, C. C., Grumann, M., Palesh, O. G., Zarcone, J., et al. (2009). Sexual adjustment and body image scale (SABIS): A new measure for breast cancer patients. *Breast Journal, 15*(3), 287-290.
- Dubler, M. L. & Gurel, L. M. (1984). Depression: relationships to clothing and appearance self-concep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1), 21-26.
- Engel, J., Kerr, J., Schlesinger-Rabb, A., Sauer, H., & Holzel, D. (2004). Quality of life following breast-conserving therapy or mastectomy: Results of a 5-year prospective study, *The Breast Journal, 10*(3), 223-231.
- Fallon, A. E. & Rozin, P. C. (1985).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desirable body shap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 102-105.

- Feather, B. L. & Lanigan, C. (1987). Looking good after your mastectomy. *American Journal of Nursing, 87*, 1048-1049.
- _____, Rucker, M., & Kaiser, S. B. (1989). Social concerns of post-mastectomy women: Stigmata and cloth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 289-299.
- Feitelberg, R. & Monget, K. (2003. 10. 31). Banding together for the cause. *Women's Wear Daily, 186*, 14-15.
- Figueiredo, M. I., Cullen, J., Hwang, Y. T., Rowland, J. H., & Mandelalatt, J. S. (2004). Breast cancer treatment in older women: Do getting what you want improve your long-term body image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22*(19), 4002-4009.
- Fisher, B., Anderson, S., Bryant, J., Margolese, R. G., Deutsch, M., Fisher, E. R., et al.(2002). Twenty-year follow-up of a randomized study comparing total mastectomy, lumpectomy and lumpectomy plus radiation for the treatment of invasive breast cancer.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47*, 1233-1241.
- Fisher, S. (1986). *Development and Structure of the Body Image vol. 2*. Hillsdale: Lawrence Erlbaum.
- _____ & Cleveland, S. (1968). Body boundary and perceptual vividn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3*, 392-396.
- Fobair, P., Stewart, S., Chang, S., D'Onofrio, C., Banks, P., & Bloom, S. (2006). Body image and sexual problems in young women with breast cancer. *PsychoOncology, 15*, 579-594.
- Ford, I. M. & Drake, M. F. (1982). Attitudes toward clothing, body and self: A comparison of two group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2), 189-196.

- Freedman, R. (1986). *Beauty bound*.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Gallgher, P., Buckmaster, A., O'Carroll, S., Kieman, G., & Geraghty, J. (2009). Experiences in the provision, fitting and supply of external breast prostheses: Findings from a national survey. *European Journal of Cancer Care*, 18, 556-568.
- Ganz, P. A. Coscarelli, A., Fred, C., Kahn, B., Polinsky, M. L., & Petersen, L. (1996). Breast cancer survivors: psychosocial concerns and quality of life. *Breast Cancer Research Treatment*, 38(2), 183-199.
- Goffman, E. (1963). *Stigma*,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Grogan, S. (1999). *Body Image: Understanding body dissatisfaction in men, women and children*. New York, NY: Routledge.
- Harcourt, D. & Rumsey, N. (2006). Altered body image. In Kearney, N, Richardson, A. (Eds) *Nursing Patients with Cancer: Principles and Practice*. London: Elsevier Churchill Livingstone.
-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mer, S.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1), 81-89.
- Helms, R. L., O'Hea, E. L., & Corso, M. (2008). Body image issues in women with breast cancer. *Psychology, Health and Medicine*, 13(3), 313-325.
- Hood, C. (2010). Project to improve care for people coping with changes in body image. *Cancer Nursing Practice*, 9(2), 26-32.
- Hopwood, P., Fletcher, L., Lee, A., & Al-Ghazal. S.(2001). A body image scale for use with cancer patients. *European Journal of Cancer*, 37, 189-197.

- Hormes, J. M., Lytle, L. A., Gross, C. R., Ahmed, R. L., Troxel, A. B., & Schmitz, K. H. (2008). The body image and relationship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of body image in female breast cancer survivors.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26*(8), 1279-1274.
- Horn, M. J., & Gurel, L. M. (1981). *The Second Skin*(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 Humphrey, C., Klassen, M., & Creekmore, A. (1971). Clothing and self-concept of adolesc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4), 246-250.
- James, W. (2005). 심리학의 원리 1 (정양은, 역). 서울: 아카넷. (원서출판 1890).
- Jenkins, M. C. & Dickey, L. F. (1976). Consumer types based on evaluative criteria underlying clothing decision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 150-162.
- Jung, J. H., Lennon, S. J., & Rudd, N. A. (2001). Self-schema or self-discrepancy? Which best explains body imag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9*(4), 171-184.
- Kaelin, C. M. (2008). *하버드 메디컬스쿨이 알려주는 유방암 치료의 모든 것: 유방암 이겨내기*(문병인, 서현숙, 최혜영, 배하석, 이경은 역). 서울: 조운커뮤니케이션. (원서출판 2006).
- Kaiser, S. B. (1998).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 (2nd ed.). New York, NY: Macmillan.
- Kalaitzi, C., Papadopoulos, V. P., Michas, K., Vlasis, K., Skandalakis, P., & Filippou, D. (2007). Combined brief psychosexual intervention after mastectomy: Effects on sexuality, body image, and

-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Surgical Oncology*, 96(3), 235-240.
- Keeton, W. P., Cash, T. F., & Brown, T. A. (1990). Body image or body images?: Comparative, multidimensional assessment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213-230.
- Keller, K. L. (1993). Conceptualizing, measuring, and managing customer: Based brand equity. *Journal of Marketing*, 57(1), 1-22.
- Kunkel, E., Chen, E., & Okunlola, T. (2002). Psychosocial concerns of women with breast cancer. *Primary Care Update for OB/GYNS*, 9(4), 129-134.
- LaBat, K. L. & DeLong, M. R. (1990).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43-48.
- Lai, A. W. (1995). Consumer values, product benefits and customer value: A consumption behavior approach.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22, 383-384.
- Lamb, J. M. (2001). Disability and the social importance of appearanc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9, 134-143.
- Landmark, B. T. & Wahl, A. (2002). Living with newly diagnosed breast cancer: A qualitative study of 10 women with newly diagnosed breast cancer.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0(1), 112-121.
- Lennon, S. J., Rudd, N. A., Sloan, B., & Kim, S. J. (1999).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self-esteem, and body image: Applications of a mod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7(4), 191-202.
- Lerner, P. (1987). *A life span perspective for early adolescence*, In Lerner & Foch(Eds). *Biological-psychological interactions in early adolescence*, Hillsdale, NJ: Erlbaum.

- Lindop, E. & Cannon, S. (2001). Evaluation the self-assessed support needs of women with breast cancer.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4(6), 760-771.
- Mahoney, E. & Finch, M. (1976). The dimensionality of body-cathexis. *The Journal of Psychology*, 92, 277-279.
- Mason, R. (1984). Conspicuous consumption: A literature review.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18(3), 26-39.
- McLean, F. P. (1978). *The process of aging related to body cathexis and to the clothing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tah State University.
- Mock, V. (1993). Body image in women treated for breast cancer. *Nursing Research*, 42, 153-157.
- Moreira, H. & Canavarro, M. (2010). A longitudinal study about the body image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breast cancer patients during the course of the disease. *European Journal of Oncology Nursing*, 14(4), 263-270.
- _____, Crespo, C., Paredes, T., Silva, S., Canavarro, M. C., & Dattilio, F. M. (2011). Marital relationship, body image and psychological quality of life among breast cancer patients: The moderating role of the disease's phase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33(2), 161-178.
- Nano, M. T., Grantly, G., Kollians, J., Bochner, M. A., Malycha, P., & Winefield, H. R. (2005). Psychological impact and cosmetic outcome of surgical breast cancer strategies. *ANZ Journal of Surgery*, 75(11), 940-947.
- Park, H. & Sullivan, P. (2008). Market segmentation with respect to

- university students' clothing benefits sought. *International Journal of Retail & Distribution Management*, 27(2), 191-195.
-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2nd ed.)*, CA: Sage.
- Peter, J. P. & Olson, J. C. (1987). *Consumer behavior: Marketing strategy, perspectives*. Homewood: Irwin.
- Petronis, V. M., Carver, C. S., Antoni, M. H., & Weiss, S. (2003). Investment in body image and psychosocial well-being among women treated for early stage breast cancer: Partial replication and extension. *Psychol Health*, 18, 1-13.
- Price, B. (2009). Understanding patient accounts of body image change. *Cancer Nursing Practice*, 8(6), 29-34.
- Reynolds, T. J. & Olson, J. C. (2001). *Understanding consumer decision marketing The means-end approach to marketing and advertising strategy*.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Rosenberg, M., Schooler, C., & Schoenbach, C. (1989). Self-esteem and adolescent problems: Model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1004-1018.
- Rosenblum, G. D. & Lewis, M. (1999). The relations among body image, physical attractiveness, and body ma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0(1), 50-64.
- Rusticus, S. A. & Hubley, A. M. (2006). Measurement invariance of the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Can we compare across age and gender? *Sex Roles*, 55, 827-842.
- Sabiston, C. M., Rusticus, S., Brunet, J., McDonough, M. H., Hadd, V., Hubley, A. M., & Crocker, P. R. E. (2010). Invariance test of the

- Multidimensional Body Self-Relations Questionnaire: Do women with breast cancer interpret this measure differently? *Quality of Life Research*, 19(8), 1171-1180.
- Schain, W., Wellisch, D., Pasnau, R., & Landsverk, J. (1985). The sooner the better: A study of psychological factors in women undergoing immediate versus delayed breast reconstruc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42, 40-46.
- Secord, P. F. & Jourard, S. M. (1953).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Body cathexis and the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7, 343-347.
- Shim, S. & Bickle, M. C. (1994). Benefit segments of the female apparel market: Psychographics, shopping orientations and demographic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2(2), 1-12.
- _____ & Drake, M. F. (1988). Apparel selection by employed women: A typology of information search pattern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6(2),1-9.
- Solomon, M. R. & Rabolt, N. J. (2004). *Consumer behavior in fashion*, NJ: Prentice Hall.
- Sontag, M. S. & Schlater, J. D. (1982).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Evolution of a concep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 1-8.
- Spradley, J. P.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Stemm, F. A., (1980). *Clothing attitudes and evaluative criteria used by employment women differing in feminine-role orientation and work orientation: Emphasis on the single again adult*. (Unpublished

-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 Thompson, J. (1990). *Body Image Disturbance, Assessment and Treatment*. Pergamon Press.
- _____ & Heinberg, L. (1999). The media's influence on body image disturbance and eating disorders: We've reviled them, now can we rehabilitate them? *Journal of Social Issues*, *55*(2), 339-353.
- Tish-Knof, M. K. (1985). Primary breast cancer: Physical consequences and rehabilitation. *Seminars in Oncology Nursing*, *1*, 214-224.
- Tucher, L. A. (1981). Internal structure, factor satisfaction, and reliability of the body cathexis scale. *Perceptual and Motor Skill*, *53*, 891-896.
- Unukovych, D., Sandelin, K., Liljegren, A., Arver, B., Wickman, M., Johansson, H., et al. (2012). Contralateral prophylactic mastectomy in breast cancer patients with a family history: A prospective 2-years follow-up study of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sexuality and body image. *European Journal of Cancer*, *48*(17), 3150 - 3156
- White, C. A. (2000a). Body image dimensions and cancer: A heuristic cognitive behavioral mode. *Psycho-oncology*, *9*, 183-192.
- _____ (2000b). Body image in oncology. In Cash, T., Pruzinsky, T.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Wicklund, R. A. & Gollwitzer, P. M. (1982). *Symbolic self-completion*. Hillsdale, NJ: Erlbaum.
- Winstead, B. A. & Cash, T. F. (1984).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A new measure of body image.

New Orleans: *South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Yalom, M., (1997) *A history of the breast*. New York, NY: Alfred A. Knopf.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13).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2010년 암 등록통계). 자료검색일 2014. 02. 20, <http://www.mw.go.kr/>

정명진. (2012. 05. 31). 유방재건술 명의 윤을식 고려대안암병원 성형외과 교수. *파이낸셜 뉴스*. 자료검색일 2013. 02. 20, <http://www.fnnews.com>

정승필. (2014. 05. 15). 유방암 5년 생존율 91%뒤의 눈물. *세계일보*. 자료검색일 2014. 05. 20. <http://www.segye.com/>

한국유방암학회(2013). *2013 유방암 백서 통권 제 1호*, 자료검색일 2014. 02. 20, <http://www.kbcs.or.kr>

Macmillan Cancer Support. (2013). 자료검색일 2014. 03. 15. <http://www.macmillan.org.uk/>

ABSTRACT

A Study of Multidimensional Body Image, Self-Esteem, and Clothing Benefits Sought by Breast Cancer Survivors as Consumers

Lee, Eunok

Department of Clothing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Recently, breast cancer patients have been rapidly growing and breast cancer treatment may result in major change to patients' body image, which may affect their self-esteem and clothing benefits sought.

The aim of this study was 1) to analyze multidimensional body image, self-esteem and clothing benefits sought between breast cancer survivors and the women without breast cancer, 2) to investigate multidimensional body image, self-esteem, clothing benefits sought, and Body Image After Breast Cancer (BIABC) by the surgical subgroups among breast cancer survivors, and 3)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of multidimensional body image, self-esteem and clothing benefits sought.

A questionnaire survey method was applied to this study. Survey consisted of three stages, which were focus group interview, pilot study and main research. For the main research,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he respondents included 207 breast cancer survivors and 333 women without breast cancer in their 30's - 50'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MBSRQ), self-esteem, clothing benefits sought and demographic variables, and examination was measured by a 5-point Likert scale. MBSRQ comprised affective aspects and cognitive/behavioral aspects. Affective aspects included Appearance Evaluation (AE), Fitness Evaluation (FE), Health Evaluation (HE), Body Area Satisfaction (BS), and Weight (WT). Cognitive /behavioral aspects included Appearance Orientation (AO), Fitness Orientation (FO), Health Orientation (HO), Illness Orientation (IO) and Overweight Preoccupation (OP). For breast cancer survivors, BIABC and breast cancer surgery related questions were asked additionally. For data analysis,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t-test,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21.0.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for clothing benefit sought, six factors were formulated: pursuit of self expression/social approval, function/health, compensation, femininity, fashion, and camouflage. BIABC was classified into four factors of body stigma/vulnerability, transparency, limitation and cancer concern.

Second, AE, HE and total evaluation of breast cancer survivors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the women without breast cancer. FO, HO, IO and total orientation of breast cancer survivor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women without breast cancer. Self-esteem of breast cancer survivors showed significantly lower. Breast cancer survivors as consumers considered function/health and entire clothing benefits sought more than the women without breast cancer. In addition, breast cancer

survivors reported a slightly higher mean of compensation benefits than the women without breast cancer.

Third, depending on the surgical method of breast cancer survivors, MBSRQ and self-esteem did no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but the scores of the mastectomy group were slightly lower than those of the other groups. However, the reconstruction after mastectomy group showed the highest mean on self expression/social approval, compensation, femininity and entire clothing benefits sought, followed by lumpectomy group and mastectomy group. The lumpectomy group was found to have more positive BIABC than the mastectomy group. In particular, the mastectomy group showed a lower body stigma/vulnerability mean than the other groups.

Fourth, MBSRQ, self-esteem, and clothing benefits sought were correlated positively. It was found that self-esteem was affected by MBSRQ, and clothing benefits sought were affected by MBSRQ and self-esteem. To be specific, AE, BS, AO and FO were effective variables for self expression/social approval, FE, BS, AO, FO and OP for function/health. Also, AO, FO and IO were effective variables for compensation, and AO was an effective variable for femininity and fashion. Overall AO w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that affected clothing benefits sought. HO and IO were found to affect function/health and compensation sough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based on the abov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reast cancer survivors' multidimensional body image and self-esteem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women without breast cancer. This implies that social support programs such as body image

improvement program, beauty care, and fashion coordination would be helpful for enhancing body image and self-esteem of breast cancer survivors.

Second, breast cancer survivors considered functional/healthy fabric clothing the most. Thus, the relevant products should be developed, and marketing strategies should be adapted.

Third, the mastectomy group showed the most negative multidimensional body image, self-esteem and body stigma/vulnerability among breast cancer survivors. Thus, a multifaceted academic and industry efforts for the mastectomy group are required to improve their body image.

Fourth, the positive correlation of multidimensional body image, self-esteem and clothing benefits sought was found, and apparel products needed to be developed to improve the consumers' body dissatisfaction.

In conclusion, it was meaningful to compare multidimensional body image, self-esteem and clothing benefits sought between breast cancer survivors and women without breast cancer by measuring the two different groups quantitatively. The study provides the characteristics of breast cancer survivors as a specific consumer group, and concerned industries need to develop relevant products and design effective marketing strategies.